

첨성대 축조연대의 추정

장활식

부산대학교 교수, 경영정보학 전공

hwschang@pusan.ac.kr

- I. 머리말
- II. 축조연대에 대한 기존의 견해
- III. 첨성대관련 초기 문헌기록의 분석
- IV. 첨성대의 착공연대와 완공연대
- V. 맺음말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첨성대 축조연대에 관한 옛 문헌기록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삼국유사』(1284±)를 필두로 하는 선덕여왕대설, 둘째는 『세종실록』지리지(1432)에만 기록된 선덕여왕 2년설, 셋째는 『삼국사절요』(1476)에서 시작되는 선덕여왕 몰년설, 넷째는 그 이외의 잡다한 연대들이다.

첫째, 『삼국유사』(1284±), 『고려사』지리지(145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경잡기』(1670), 『여지도서』(1765) 등은 선덕여왕대(632-647)에 첨성대를 쌓았다고 했다.¹ 이황(1501-1570), 성여신(1546-1632), 이만부(1664-1732), 윤기(1741-1826), 유취문(1773-1827), 김매순(1776-1840), 이유원(1814-1888), 장지연(1864-1921) 등도 개인의 문집에서 선덕여왕대에 “첨성대를 쌓았다”라고 했다.²

둘째, 『세종실록』지리지(1432)는 정관 7년(633)의 기사년(633)에 “첨성대를 쌓았다”고 했다.³ 그러나 선덕여왕 2년(633)이라는 축조연대를 전승한 후대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지지류(地志類)로 분류되는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 『여지도서』도 2년설이 아닌 선덕여왕대설을 따랐다.

- 1 『三國遺事』紀異, 善德王知幾三事. “是王代 鍊石築瞻星臺”; 『高麗史』卷 57, 地理志, 慶州瞻星臺. “新羅善德女主 所築”;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1, 慶州府 瞻星臺; 『東京雜記』卷 2, 瞻星臺; 『輿地圖書』卷 下, 慶州府 瞻星臺. “善德女主時 鍊石築臺”
- 2 李滉, 『退溪集(攷證)』卷 3, 趙士敬云云. “善德女主時 鍊石築臺”; 成汝信, 『浮查集』卷 1, 東都遺跡. “善德女王時 鍊石築臺”; 李萬敷, 『息山集』卷 4, 東都雜錄. “善德女主 作瞻星臺”; 尹椿, 『無名子集』卷 6, 詠東史, 其二百三十二. “善德主時 作瞻星臺”; 柳徵文, 『好古窩集』卷 17, 南遊錄. “善德女主所築”; 金邁淳, 『臺山集』卷 3, 瞻星臺. “善德女主所築”; 李裕元, 『林下筆記』卷 11, 儀象. “新羅善德主 作瞻星臺”; 張志淵, 『韋庵文稿』卷 7, 瞻星臺. “新羅善德女主時 鍊石築臺”
- 3 『世宗實錄』卷 150, 地理志, 慶州府 瞻星臺. “唐太宗貞觀七年癸巳 新羅善德女王所築”

셋째, 서거정(1420-1488) 등의 『삼국사절요』(1476)와 동일계통의 사서인 『동국통감』(1485), 박상(1474-1530)의 『동국사략』, 허목(1595-1682)의 『미수기언』, 임상덕(1683-1719)의 『동사회강』, 홍봉한(1713-1778) 등의 『동국문헌비고』(1770), 안정복(1721-1791)의 『동사강목』(1778), 이원익(1792-1854)의 『기년동사략』(1849), 김정호(1804-1866)의 『대동지지』,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증보문헌비고』(1908) 등은 첨성대 연대를 선덕여왕 16년(647)이라 했다.⁴ 사서류(史書類)로 분류되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국사략』, 『동사회강』, 『동사강목』, 『기년동사략』 등은 모두가 선덕여왕 몰년(647)에 “첨성대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넷째, 유한준(1732-1811)은 진덕여왕대(647-654)에 첨성대를 만들었다고 했다.⁵ 선덕여왕을 진덕여왕으로 착각했거나, 진덕여왕 원년(647)을 말한 듯하다. 송달수(1808-1858)는 신라 말의 여주가 쌓았다고 했는데,⁶ 선덕여왕을 진성여왕으로 착각했다고 판단된다. 강린(1928)은 선덕여왕의 죽음을 의자왕 6년(647) 8월이라 하고, 그 전월인 7월에 첨성대를 쌓았다고 했다.⁷ 선덕여왕의 승하시점인 ‘1월 8일’을 ‘8월’로 착각하고,⁸ 그 전월에 첨성대 축조기록을 배치한 듯하다.

-
- 4 『三國史節要』 善德王 16年 1月: 『東國通鑑』 善德女主 16年 1月. “新羅作瞻星臺”; 朴祥, 『東國史略』 卷 1. “預言死期 又作瞻星臺及薨”; 許穆, 『眉叟記言』 卷 33, 新羅世家 中. “作瞻星臺 主薨”; 林象德, 『東史會綱』 卷 2, 丁未年. “新羅作瞻星臺”; 『東國文獻備考』 卷 37, 瞻星臺. “善德主十六年正月 鍊石築臺”; 安鼎福, 『東史綱目』 卷 3下, 善德女主 16年. “新羅作瞻星臺”; 李源益, 『紀年東史約』 卷 2, 善德女主 16年. “新羅作瞻星臺”; 金正浩, 『大東地志』 卷 4, 瞻星臺. “善德王十六年 鍊石築臺”; 『增訂東國文獻備考』 卷 37, 象緯考 2, 儀象 1. “[補] 新羅善德王十六年 作瞻星臺 鍊石築臺”
- 5 俞漢雋, 『自著』 卷 1, 廣韓賦. “眞德王時 作瞻星臺 累石爲之 上方下圓”
- 6 宋達洙, 『守宗齋集』 卷 8, 雜著. “瞻星臺累石爲之 高可數十丈 周圍殆近十把 此是羅末女主所爲 枉費民力 何益於國”
- 7 『菊露秋寫 朝鮮歷史』 卷 2, 義慈王 丁未 6年. “秋七月 羅王築瞻星臺 [...] 八月 羅王薨”
- 8 이런 오류는 두계학술재단(1999)의 『삼국사기』(<http://krpia.co.kr>)와 한국인문고전연구소(2012)의 『삼국사기』(<http://terms.naver.com>) 등에서도 발견된다.

첨성대가 선덕여왕대에 축조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간혹 나타나는 잡다한 연대들은 서술자의 해석이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선덕여왕대(632-647)설은 2년(633)설 또는 몰년(647)설과 상충하지 않으며, 명목적인 축조연대의 차이는 2년설과 몰년설 간에 존재한다. 따라서 타당한 결론은 다음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2년설과 몰년설이 모두 옳았을 가능성, 둘째는 모두 틀렸을 가능성, 셋째는 2년설만이 옳았을 가능성, 넷째는 몰년설만이 옳았을 가능성이다. 축조연대에 관한 기존의 견해는 3가지이다.⁹ 선덕여왕대설만을 인정한 견해, 2년설만을 인정한 견해, 몰년설만을 인정한 견해이다. 2년설과 몰년설을 모두 인정한 견해는 지금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첨성대의 축조연대를 고찰한다. 고대사연구에서 2년(633)과 몰년(647)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축조연대는 첨성대는 물론이고 선덕여왕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첨성대 축조를 『삼국유사』는 “축첨성대(築瞻星臺)”,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소축(所築)”, 『삼국사절요』는 “작첨성대(作瞻星臺)”라 했다. 그 이후의 지리지 문헌들은 “소축” 또는 “축대(築臺)”라 했고, 사서류의 문헌들은 모두가 “작첨성대”라고 했고, 개인의 문집들은 이런 표현들을 혼용했다. 그런데 이기동(1981)은 ‘축(築)’을 ‘쌓는다’, ‘작(作)’을 ‘만들다’로 구분해 해석했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축첨성대”와 “작첨성대”가 같은 뜻인지 또는 다른 뜻인지를 살펴본다.

9 남천우(「첨성대에 관한 제설의 검토」, 『역사학보』 제64집(1974), 134쪽)는 첨성대가 선덕여왕대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막연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으므로(장활식, 「경주 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제42집(2013), 116-117쪽),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10 이기동, 「선덕여왕의 시대」,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1981), 145쪽.

II. 축조연대에 대한 기존의 견해

현대의 첨성대연구에서 몰년설은 1910년, 선덕여왕대설은 1981년, 2년설은 1998년부터 주장되었다. 축조연대에 대한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첨성대연구에서는 『증보문헌비고』(1908)의 몰년설이 통설이었다. 와다유지(1910), 전상운(1964) 등은 『증보문헌비고』를 근거로 첨성대가 선덕여왕 16년(647)에 축조되었다고 했다.¹¹

둘째, 제3차(1981) 첨성대토론회에서 2년설과 몰년설을 모두 부정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이기동(1981)은 축조연대가 선덕여왕대임에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설은 유년칭원법의 원년에 배치한 것이고 『증보문헌비고』의 몰년설도 “사건의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어서 몰년에 배치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¹² 김일권(2010)도 역시 2년설과 『증보문헌비고』의 몰년설을 모두 부정했다.¹³ 김광태(2013)는 “분명한 사료나 증거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첨성대 축조연대를 “미확인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 했다.¹⁴

한편 민영규(1981)는 몰년설을 신봉할 필요는 없으며, 축조연대를 선덕여왕의 초반이나 후반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 했다.¹⁵ 최중석(2007)은 첨성대와 황룡사구층탑이 선덕여왕 15년(646)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¹⁶

11 和田雄治, 「慶州瞻星臺の記」, 『天文月報』 제2권 제11호(1910), 121쪽; 전상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천문의기」, 『고문화』 제3집(1964), 22쪽.

12 이기동(1981), 앞의 논문, 145쪽.

13 김일권, 「첨성대의 靈臺적 독법과 신라 왕경의 三雍제도 관점」, 『신라사학보』 제18집(2010), 6-13쪽.

14 김광태, 「첨성대 수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 『천문학논총』 제28권 제2호(2013), 27쪽. 본 연구는 사료와 증거는 충분하지만, 타당한 해석이 없었다고 본다.

15 민영규, 「瞻星臺偶得」,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1981), 142쪽.

16 최중석, 「신라 미륵신앙과 첨성대」, 『보조사상』 제27집(2007), 224쪽.

셋째, 2년설을 지지하고 몰년설을 부정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이강식(1998)은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설과 『증보문헌비고』의 몰년설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고 했다.¹⁷ 첨성대는 유년칭원법의 원년인 선덕여왕 2년(633)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의례와 함께 완성되었을 것이며, 몰년(647)에는 선덕여왕이 1월 8일에 승하했으므로 “첨성대 건립의 주요 사업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천주사의 경내에 축조된 첨성대가 선덕여왕 원년(632)에 착공되어 2년(633)에 완공되었다고 추정했다.

박창범(2009)도 2년설만을 신뢰할 수 있으며, 몰년설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¹⁸ 『증보문헌비고』(1908)는 『세종실록』(1454)지리지보다 “454년이나 후대의 문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수차의 오류 수정 작업을 거친 점을 보아 『증보문헌비고』에는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을 것이고, 첨성대의 축조연대도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연식(2009)도 2년설을 지지하면서 『증보문헌비고』의 몰년설을 비판했다. 2년설에 대해 선덕여왕의 “이미지 만들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이 매끄럽게 연결되며, “신궁의 제사와 첨성대의 준공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했다.¹⁹ 몰년설은 “비담의 군사가 월성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첨성대를 축조했을 리가 없고, 몰년(647)에서 “첨성대 건립 날짜로 가능한” 날이 7일에 불과하므로 “647년일 가능성은 633년보다 훨씬 낮다”고 했다. 김명숙(2016)도 첨성대 축조연대에 관해서는 정연식(2009)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633년에 “성조황고라는 존호의 상징물로서 첨성대를 건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²⁰

17 이강식, 「첨성대의 본질에 따른 문화마케팅전략구축」,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0집(1998), 44쪽.

18 박창범, 「경주 첨성대」, 『제3회 고천문연구 워크숍』(2009), 47쪽.

19 정연식, 「선덕여왕과 聖祖의 탄생, 첨성대」, 『역사와 현실』 제74집(2009), 362쪽.

20 김명숙, 「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제32권 제3호(2016), 162쪽.

넷째, 『삼국사절요』를 근거로 몰년설이 다시금 주장되었다. 장운성·장활식(2009)은 몰년설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 『증보문헌비고』(1908)가 아니라 『삼국사절요』(1476)였음을 밝히고, 선덕여왕이 왕릉의 위치를 미리 결정해 두었던 것처럼 “침성대 건립도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생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침성대의 완성시점은 『삼국사절요』의 서술대로 선덕여왕 몰년이었다고 했다.²¹ 장활식(2012a)은 『삼국유사』에서 침성대가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므로 침성대는 『삼국사절요』의 서술대로 선덕여왕의 죽음에 때를 맞춰 완성되었다고 봐야 옳다고 했다.²² 이어서 장활식(2013)은 “침성대의 완성과 선덕여왕의 죽음이 선덕여왕 16년(647) 정월”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²³

축조연대에 관한 기존의 단편적 견해에서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이기동(1981), 김일권(2010), 장활식(2012a)은 2년설을 부정했지만, 이강식(1998), 박창범(2009), 정연식(2009), 김명숙(2016)은 2년설만을 수용했다. 2년설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 둘째, 대다수 침성대연구자들은 몰년설이 『증보문헌비고』(1908)에만 있다고 간주하고, 『삼국사절요』(1476)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삼국사절요』의 몰년설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졌는지가 의문이다. 셋째, 이강식(1998)과 장운성·장활식(2009)을 제외한 침성대연구는 완공연대에만 관심을 두었고, 착공연대를 고찰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년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삼국사절요』에서 시작된 몰년설이 뜻하는 바를 밝히고, 침성대의 착공연대와 완공연대를 구분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는 축조연대를 상세히 고찰하는 최초의 침성대연구이다.

21 장운성·장활식, 「침성대 회유정 가설」, 『한국고대사연구』 제54집(2009), 466쪽.

22 장활식, 「침성대 옛 기록의 분석」, 『신라문화』 제39집(2012a), 142-145쪽.

23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33쪽.

Ⅲ. 첨성대관련 초기 문헌기록의 분석

본 연구는 첨성대 축조연대를 밝히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첨성대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초기 문헌기록을 대상으로 첨성대의 축조 연대를 첨성대의 본질과 함께 살펴본다.

1. 『삼국유사』의 선덕여왕대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첨성대 기록은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편술한 『삼국유사』(1284±)의 「선덕왕지기삼사」조에 있다. 「선덕왕지기삼사」의 제1사는 선덕여왕이 꽃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없음을 예지한 것이며, 제2사는 영묘사의 개구리 울음을 듣고 적의 침입을 예지한 것이며, 제3사는 자신의 죽을 날과 선덕여왕릉 아래의 사천왕사 건립을 예지한 것이다. [가-1]에 제시한 제3사의 주제는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이다.

[가-1] 셋째, 왕이 아무런 병이 없을 때에 군신들에게 “나는 모년의 모월일에 죽을 것이니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지내도록 하라”고 했다. 군신들이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를 말합니까”라고 하니, 왕이 “낭산의 남(南)이다”라고 했다.²⁴ 과연 그 달의 그 날에 이르러 왕이 죽었기에 군신들은 낭산의 양지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에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기를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에 대왕의 영성(靈聖)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24 낭산의 북쪽 봉우리(해발 115m)가 아닌 남쪽 봉우리(해발 102m)를 말한다.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맨 마지막 문단은 [가-2]와 같다. 말미에 “『별기』에 따르면 선덕여왕대에 축첩성대(築瞻星臺)를 했다”라는 서술이 있다.

[가-2] 세 색깔의 꽃을 보낸 것은 신라에 세 여왕이 있을 것임을 뜻했을 것인데, 선덕·진덕·진성이었으니 당황제도 선견지명이 있었던 듯하다. 선덕의 영묘사 창건은 「양지사전」에 자세하게 적혀있다. 『별기』에 따르면 이 왕대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삼국유사』 기이, 선덕왕지기삼사).

첫째, [가-1]의 제 3사와 [가-2]의 첨성대 간에 은휘(隱諱)된 연관성을 살펴본다. [가-2]에서 일연은 첫째로 제1사의 목단꽃에 대해 언급하고, 둘째로 제2사의 영묘사에 대해 언급하고, 셋째로 첨성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일연이 서술한 첨성대는 제3사와 무관할 수가 없어 보인다.²⁵ 장활식(2012a)은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문단구조를 분석하여 [가-1]의 도리천장례와 [가-2]의 첨성대 간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²⁶

이에 앞서 신종원(1996)은 “첨성대를 통하여 하늘에 제사지냈다거나 천계왕래를 했다는 ‘천(天)’은 바로 도리천”이라 했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주장은 이용범(1974), 밀교승려들이 도리천을 왕래했다는 주장은 민영규(1981)가 제기했던 것이다.²⁷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첨성대가 도리천과 연관되었음을 직관적으로 간파했었던 듯하다. 김기홍(2000)은 선덕여왕이 도리천으로 상생하는 통로가 첨성대였다고 했다.²⁸

25 장윤성·장활식(2009), 앞의 논문, 466-471쪽.

26 장활식(2012a), 앞의 논문, 135-137쪽.

27 신종원,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7집(1996), 62쪽; 이용범, 「첨성대 存疑」, 『진단학보』 제38집(1974), 47쪽; 민영규(1981), 앞의 논문, 140쪽.

28 김기홍, 『천년의 왕국 신라』(창작과 비평사, 2000), 262쪽.



그림1-동지일출선에 맞춰진 선덕여왕릉과 첨성대

조경학자 정기호(1991)는 그림1에서와²⁹ 같이 선덕여왕릉(=도리천)과 첨성대를 잇는 직선이 동지일출선과 정확히 맞춰져 있음을 밝혔다.³⁰ 천문학의 개념인 동지일출은 고대로부터 종교적 의미를 가졌었다. 중국에서는 동지에 천신(天神)과 인귀(人鬼)에게 제사를 지냈고, 서양에서는 동지가 예수의 성탄절이 되었고, 남미의 마야문명도 동지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다.³¹ 장활식(2017a)은 선덕여왕릉을 빠져나온 유혼이 동지의 아침햇살을 타고 첨성대로 날아가서 승천했을 것이라 했다.³²

29 그림1은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30쪽의 그림8과 장활식, 「첨성대 축조 발원자」, 『신라문화』 제49집(2017a), 53쪽의 그림2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그림1의 우측 하단에서 도리천(=선덕여왕릉) 아래에 사천왕사지가 위치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30 정기호, 「경관에 개재된 내용과 형식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제19권 제2호(1991), 23-31쪽.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29쪽)은 “첨성대를 기준으로 동지일출 방향은 동남동 29.45도”이며, “첨성대와 선덕여왕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동남동 약 29.5도”이므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고 확인했다.

31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31-132쪽.

32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61쪽.

선덕여왕릉(=도리천장례)과 침성대간의 필연적 연관성은 조선시대의 시문에서도 나타난다. 『삼국사절요』 등을 편찬한 서거정(1420-1488)은 [나-1]과 같이 말했다.³³

[나-1] 침성대 아래에서 옛 가무를 했더니 瞻星臺下舊謠舞
하늘 첫머리에서 되돌아오는 꿈을 밤에 꾸었다. 夜夢歸來天一頭

‘가무(謠舞)’란 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고대의 장례식에서 행한” 노래와 춤을 말하며, ‘천일두(天一頭)’는 ‘하늘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을 말한다.³⁴ ‘귀래(歸來)’의 뜻이 한무제(漢武帝:재위 141-87, B.C.)가 세운 귀래망사지대(歸來望思之臺)에서의 뜻과 같았다면,³⁵ 귀래의 주체는 망자의 영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1]은 “침성대 아래에서 신라시대의 가무로 선덕여왕의 유혼을 위로했더니, 선덕여왕이 도리천에서 되돌아오는 꿈을 밤에 꾸었다”라는 뜻일 듯하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아래의 시문도 있다.³⁶

[나-2] 도리천의 무덤으로 보낼 속셈 하나를 위해 摠向切陵輸一算
하늘을 보는 노대를 드높이 쌓아올렸다. 露臺千尺爲看星

김매순(1776-1840)은 [나-2]에서 “선덕여왕을 도리천에 묻기 위해 침성대를 쌓았다”라고 했다. 도리천(=선덕여왕릉)과 침성대 간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이 조선시대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33 徐居正, 『四佳集』 卷 29, 次韻孫上舍同年見寄.

34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5-56쪽.

35 『前漢書』 卷 63, 戾太子據. “乃作思子宮 為歸來望思之台於湖 天下聞而悲之”

36 金邁淳, 『臺山集』 卷 3, 瞻星臺;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34쪽.

선덕여왕릉(=도리천장례)과 첨성대간의 필연적 연관성은 적어도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문단구조,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배치, 조선시대의 시문에서 드러난다. 이런 근거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둘째,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를 살펴본다. 불교의 윤회관과 신라의 전통적 죽음관은 죽음 이후에 육체(=주검)와 영혼(=유혼)이 분리된다고 본다.³⁷ 중고기(514-654) 신라밀교의 소의경전인³⁸ 『관정경』에 따르면, 불도(佛道)를 닦은 유혼은 도리천으로 승천하거나 인간세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윤회에서 탈락된 유혼은 귀신이나 정(精)으로 전락하며, 죄과가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³⁹ 선덕여왕은 길상천녀의 화신으로 신라불국토를 다스렸으므로⁴⁰ 마땅히 도리천으로 승천했을 것이다. 선덕여왕의 유혼이 낭산에 남았을 리는 없다. 주검이 신라의 도리천인 낭산에 묻혔고, 유혼이 돌아갈 곳은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일 수밖에” 없었다.⁴¹

당시에 신라왕의 상장의례기간(=상복기간)은 약 1년이었고,⁴² 상장의례 절차는 ①사체를 염습하여 입관하는 관령의례, ②관을 빈전으로 옮겨 가매장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안치하는 빈전의례, ③유골을 수습하여 왕릉에 매장하는 본장의례, ④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는 졸곡의례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신라의 전통적 상장의례 일정을 문무왕의 경우로 살펴보면, 관령의례에 10일, 빈전의례에 약 9개월 27일, 본장의례에 7일, 졸곡의례에 약 2개월 12일이 소요되어, 상복기간은 25일을 초과한 1년이었다.⁴³

37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제20집(2000), 170쪽. 유혼은 주검에서 분리된 영혼을 말한다.

38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제63집(2007), 252-258쪽.

39 『佛說灌頂經』 卷 6. “或生天上三十三天在中受福 或生人間豪姓之家”

40 『孤雲集』 卷 1, 善安住院壁記. “昔我善德女君 宛若吉祥聖化 誕膺東后 景仰西方”

41 신중원(1996), 앞의 논문, 59쪽.

42 『隋書』 卷 81, 新羅.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 제65집(2012), 35-75쪽.

43 문무왕은 재위 21년(681) 7월 1일에 승하였다. 7월 7일에 입관하고, 신문왕이 즉위

선덕여왕과 문무왕의 장례일정이 똑같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전통적 상복규정과 절차를 공통적으로 따랐음은 분명하다.⁴⁴ 선덕여왕은 재위 16년(647) 1월 8일에 승하했다. 진덕여왕 원년(647) 1월 17일에 관림의례를 끝내고, 빈전의례를 시작했을 것이다. 사체수습이 일단락된 17일에 김유신이 비담의 반란군을 섬멸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이어서 빈전의례를 10개월 내외로 치른 후에 길일을 선택하여⁴⁶ 본장의례를 거행했을 것이다. 본장의례의 시점은 대략 11월의 중순경 전후였을 듯하다.

선덕여왕의 유해에서 영혼이 분리된 시점은 본장의례가 종료된 이후로 추정된다. 발해의 경우이지만, 정효공주(757-792)의 묘지(墓誌)는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돌아갈 즈음에 영혼이 하늘로 돌아간다”고 했다.⁴⁷ 한편 『관정경』에 따르면, 주검에서 분리된 유혼은 7일, 14일, 21일 혹은 49일이 되는 날에 염라왕의 심판을 받아야만 왕생처와 왕생신분 등이 결정된다.⁴⁸ 도리천상생이 진작에 예약되었다면, 선덕여왕의 유혼은 본장의례가 끝난 날로부터 기(忌)의 기본단위인 7일이 되던 날에 승천했을 듯하다.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는 유골을 진덕여왕 원년(647) 11-12월경에 낭산

했다(『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七月七日即位”). 이어서 3일간의 제사를 지낸 듯하며, 7월 10일에 화장했다(『新羅文武大王陵碑』, “燒葬卽以其月十日”). 빈전의례는 7월 10일부터 이듬해(682) 5월 7일경까지 약 9개월 27일이었다(『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明年壬午五月朔 […] 王喜以其月七日駕幸利見臺”). 본장의례는 신문왕 2년(682) 5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7일로 판단된다(『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天地振動風雨晦暗七日”). 그 이후에 신문왕은 3일간의 제례를 감은사에서 지낸 듯하다(『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十七日到祇林寺西溪邊”). 출곡의례가 종결되었던 시점은 사천왕사에 문무대왕비를 세웠던 신문왕 2년(682) 7월 25일이었다(『新羅文武大王陵碑』, “餘下拜之碣迺爲銘曰 […] 廿五日景辰建碑”).

44 『三國史記』文武王 21年 7月 1日. “服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務從儉約”

45 『三國史記』眞德王 1年 1月 17日.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46 『隋書』卷 81, 高麗. “死者殯于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47 「貞孝公主墓誌」. “莫殯已畢 卽還靈輜 魂歸人逝 角咽笳悲”

48 『佛說灌頂經』卷 12. “閻羅監察隨罪輕重 […] 或七日二三七日乃至七七 日名籍定者”

의 남쪽에 묻고, 선덕여왕의 유혼이 진덕여왕 원년(647)의 동짓날에 첨성대를 통해 도리천으로 승천하는 형태였을 듯하다. 선덕여왕의 상장의례는 진덕여왕 2년(648) 2월경에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셋째, 『별기』에 대해 살펴본다.⁴⁹ 일연은 『별기』를 근거로 첨성대가 선덕여왕대에 축조되었다고 했다. 신종원(1992, 1996)은 『별기』를 밀교승려 안함(=안홍: 579-640)이 저술한 참서(=예언서)로 추정했다. 선덕여왕을 도리천에 묻고, 그 아래에 사천왕사를 건립할 것을 입안했던 인물이 선덕여왕이 아니라 신라불국토설을 주창한 안함(=안홍)이었음이 분명하므로⁵⁰ 첨성대도 “안홍의 신라불국토설과 동궐(同軌)의 불교우주론적 동기를” 바탕으로 축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⁵¹

안함(=안홍)은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을 “교리적으로 후원한 이론가”였으며, 교리적 근거는 안함(=안홍)이 진평왕 47년(625)에 황룡사에서 역출케 했던 밀교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 등에 있었다.⁵² 분황사, 영묘사, 선덕여왕릉, 첨성대, 황룡사구층탑, 사천왕사 등이 모두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을 근거로 조성되었고, 『관정경』도 수(隋)에서 구법유학을 했던 “안홍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라밀교의 근본이었던 밀본의 실체가 다름 아닌 안함(=안홍)이었다고 한다.⁵³

49 『삼국유사』가 인용한 신라 중고기(514-654) 기록을 담은 『별기』로 국한한다.

50 『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第一女主 葬切利天 [...] 四天王寺之成 [...] 后葬切利 建天王寺”; 신종원, 「안홍과 신라불국토설」, 『중국철학』 제3집(1992), 173-178쪽.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1쪽)은 선덕여왕의 죽을 날도 역시 “음악, 향기, 神光 등과 같은 전조 혹은 부험의 영험함을 깨닫게 하는 형태로” 밀교승려 안함(=안홍)에 의해서 예언되었을 것이라 했다.

51 신종원(1996), 앞의 논문, 60쪽.

52 『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遂東來 住皇龍寺 譯出『旃檀香火星光妙女經』”; 신종원(1996), 앞의 논문, 60쪽; 장활식, 「해동고승전 釋安含전의 분석」, 『신라문화』 제46집(2015), 259-262쪽.

53 신종원(1992), 앞의 논문, 179-185쪽; 신용철, 「초기 신라 佛塔觀에 대한 고찰」,

장활식(2017)은 자장의 신라불국토설이 『별기』의 예언대로 전개되었고, “『별기』는 신라불국토설을 주창한 안함(=안홍)의 참서”라 했다.⁵⁴ 침성대는 안함(=안홍)이 축조를 발원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았다.

『해동고승전』(1215)은 안함(=안홍)이 참서 1권을 저술했다고 했다.⁵⁵ 『삼국유사』(1284±)는 그 참서를 『별기』, 『별본』, 『동도성립기』라고 다양하게 칭했고,⁵⁶ 『세종실록』지리지(1432)는 『해동안홍기』라 했고,⁵⁷ 『세조실록』(1471)에서는 『안함·노원·동중 삼성기』의 『안함기』로 나타난다.⁵⁸ 정약용(1762-1836)은 『안홍기』,⁵⁹ 이규경(1788-미상)은 『신라승 안홍기』라 했다.⁶⁰ 일연이 읽었던 『별기』는 안함(=안홍)의 참서인 『안함기』(=『안홍기』=『동도성립기』)를 말하며,⁶¹ 세조 3년(1457)에 금서(禁書)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사찰과 민간에서 유통되었다. 『별기』에는 안함(=안홍)이 서술한 침성대 “축조 인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²

넷째, 침성대의 본원적 성격을 살펴본다. 침성대는 선덕여왕 유혼의

『문화사학』 제27집(2007), 453쪽; 장활식,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밀본의 실체」, 『신라문화』 제47집(2016), 103-138쪽.

54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与別記所載符同”;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2쪽.

55 『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和尚返國以後 作識書一卷”

56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与『別記』所載符同 [...] 『別本』云 阿育王在西竺”;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安弘撰『東都成立記』”.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3쪽)은 『삼국유사』에서 발견되는 이런 형태의 은휘를 ‘일연의 코드’라 했다.

57 『世宗實錄』 卷 151, 濟州牧. “『三國遺事』載『海東安弘記』”

58 『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安含·老元·董仲 三聖記』 [...] 不宜藏於私處” 老元(=元老)은 楚의 老子로 추정되며(『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3, 海州牧, 首陽山城. “安咸·元老·董仲 三人”), 董仲은 前漢의 유학자인 董仲舒를 말한다(장활식(2015), 앞의 논문, 250쪽). 『안함·노원·동중 삼성기』는 불교·도교·유교의 참서(=예언서)로 판단되는데, 가장 후대의 인물인 안함(=安咸=安弘)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다.

59 『與猶堂全書』 卷 8. “按『三國遺事』『安弘記』”

60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三韓始末辨證說. “『三國遺事』引『新羅僧安弘記』”

61 東晉(317-420)의 法顯이 저술한 『佛國記』가 후대에서 『法顯傳』, 『法顯行記』, 『歷遊天竺記傳』, 『佛遊天竺記』 등으로 다양하게 칭해졌음과 다름이 없을 듯하다.

62 신중원(1996), 앞의 논문, 62쪽.

도리천 상생을 기원한 밀교적 성격의 총탑(塚塔)으로 추정된다.

위주(魏主) 조조(曹操: 155-220)는 생전에 대(臺)를 건립했다. 건안 15년(210)에 동작대(銅雀臺)를 건립해 두고, 자신이 죽은 후에 기첩들로 하여금 때때로 동작대에 올라가서 가무를 하고 자신이 묻힌 서릉(西陵=高陵)을 바라보도록 했다.⁶³ 조조의 아들인 조식(曹植: 192-232)은 동작대의 본질을 “능허를 위한 계단”이라 했다.⁶⁴ ‘능허(凌虛)’란 ‘허공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다’를 뜻한다.⁶⁵

선덕여왕도 왕릉과 함께 허공을 뛰어넘는 대(臺)를 쌓았다. 첨성대의 축조목적은 선덕여왕 유혼의 도리천상생을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기동(1981)은 신라가 “(황룡사)구층탑을 만든다거나 혹은 (사천왕사)불교도량에서 밀교의 비법을 행한 것은 선덕여왕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안목이” 되며, 첨성대도 이런 밀교의 “기원적·주술적·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⁶⁶ 본 연구도 역시 첨성대를 밀교적 성격으로 본다.

당고종(唐高宗: 628-683)은 어머니 문덕황후(601-636)의 도리천 왕생을 위해 자은사를 건립하고, 자은사의 경내에 자은탑(=대안탑)을 세웠다. 진덕여왕 2년(648)에 완성된 자은사는 문덕황후가 도리천에서 누릴 행복을 위함이었고, 진덕여왕 8년(654)에 완성된 자은탑의 본질은 소릉(昭陵)에 묻힌 문덕황후의 부도(浮圖)였다.⁶⁷

63 『水經注』 卷 10, 濁漳水. “建安十五年魏武所起”; 『文選』 卷 60, 弔魏武帝文. “輒向帳作伎汝等時時登銅爵臺”; 『臨潭縣志』 卷 15. “登銅雀臺賦 [...] 飛閣順其特起 層樓儼以承天”

64 『曹子建集』 卷 1, 節游賦. “建三臺于前處 飄飛陛以凌虛”. 三臺는 銅雀臺, 金虎臺, 冰井臺를 말한다(“中曰銅雀臺 [...] 南則金虎臺 [...] 北曰冰井臺”, 『水經注』 卷 10, 濁漳水).

65 奇大升, 『高峯集』 卷 1, 瀑布用晦庵韻. “安得凌虛術 幽尋度此生”; 李裕元, 『林下筆記』 卷 37. “凌虛直欲躡仙蹤”; 崔溥, 『漂海錄』 卷 2. “凌虛地欲浮”

66 이기동(1981), 앞의 논문, 146쪽.

67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仰規忉利之果 副此罔極之懷”;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法師欲於寺端門之陽造石浮圖”; 『長安志』 卷 8, 大慈恩寺 西院浮圖. “以置西域經像後浮圖心內”;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8-59쪽.

당(唐)의 잠참(岑參: 715-770)은 “자은탑의 꼭대기에 인간세계를 벗어나는 계단길이 허공에 놓여있다”라고 했다.⁶⁸ 한편 조수삼(1762-1849)은 첨성대의 꼭대기에 놓인 “허공의 층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리”라고 하고, 신라의 첨성대와 당(唐)의 자은탑은 제작이 같았다고 했다.⁶⁹

석가모니는 도리천에서 왕생해있던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90일간의 설법을 펼치고, 허공에 놓인 삼도보계(=삼도보제)를 밟고 지상세계로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⁷⁰ 첨성대와 자은탑 위의 허공에 놓인 층계는 삼도보계와 마찬가지로 도리천과 인간세계를 연결하는 신앙적 통로였을 것이다. 선덕여왕의 유혼은 진덕여왕 원년(647)의 동짓날에 첨성대 위의 허공에 놓인 계단을 통해 도리천으로 상생했을 듯하다.

그런데 첨성대는 자은탑과는 달리 총탑(塚塔)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臺)는 ‘높고 평평한’ 구조, 탑(塔)은 ‘높고 뾰족한’ 구조를 말한다. 첨성대의 상층부 원형은 알 수 없지만,⁷¹ 첨성대는 줄곧 “‘첨성’이라는 이름의 대”로 여겨져 왔다.⁷² 첨성대는 형태측면에서 탑이라 장담하기가 어렵고, ‘첨성탑’이 아닌 ‘첨성대’라 칭해져왔다.

그런데도 김종직(1431-1492)은 첨성대를 ‘석탑’이라 했다.⁷³ 역사학에

68 『全唐詩』 卷 198, 與高適薛據登慈恩寺浮圖. “登臨出世界 踰道盤虛空”

69 趙秀三, 『秋齋集』 卷 4, 瞻星臺. “石臺登拾級 級盡卽層空 磅礴疑天墜 崢嶸愁鬼工 盤心星度近 絕頂暗梯通 中國慈恩塔 聞言此製同”

70 『佛說觀佛三昧海經』 卷 6, 觀四威儀品. “為佛世尊作三道寶階 左白銀·右頗梨·中黃金 從閻浮提金剛地際上切利宮”; 『經律異相』 卷 7. “作三道寶階”; 『撰集百緣經』 卷 9, 化生比丘緣. “作三道寶梯”. 하강을 위한 삼도보계는 물론 ‘築’이 아니라 ‘作’되었다.

71 현재 첨성대의 상층부는 원형에서 벗어난 형태로 복구되어있다(장활식, 「첨성대의 파손과 잘못된 복구」, 『문화재』 제45권 제2호(2012b), 72-99쪽). 자은탑도 무척 천(武則天: 624-705)이 장안연간(長安: 701-704)에 상층부를 개조해 버렸다(『游城南記』 卷 1. “長安中摧倒 天后及王公施錢 重加管建至十層”).

72 『四佳集』 卷 3, 瞻星老臺. “古臺牢落號瞻星”; 『浮查集』 卷 2, 東都懷古. “臺號瞻星夕照紅”; 『是庵集』 卷 2, 瞻星老臺. “崇臺突兀號瞻星”; 『自著』 卷 7, 瞻星臺. “有臺名瞻星”

73 『佔畢齋詩集』 卷 2, 瞻星臺. “半月城邊嵐霧開 亨亨石塔迎人來 新羅舊物山獨在 不意更有瞻

특히 밝았던⁷⁴ 그가 대와 탑을 구분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 첨성대를 “형형한 석탑”이라 했다. 첨성대가 총탑이었을 가능성은 『관정경』에서 비롯된다. 『관정경』은 불국토의 적절한 장례방법으로는 수장, 화장, 탑총장 밖에 없다고 했다.⁷⁵ 수장이나 화장이 아니었던 선덕여왕의 장례는 신라불국토에서 탑총장으로 치러졌을 듯하다. 탑총장에서는 총탑과 무덤이 축조된다. 그림1에서 첨성대가 총탑(塚塔), 선덕여왕릉이 총(塚)일 듯하다.

탑총장은 나름 특이한 장례방법이다. 중국의 전통적 장례방법은 수장(水葬), 화장(火葬), 토장(土葬), 임장(林葬)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장 즉 매장(埋葬)이 보편적이었지만 불교전래 이전에도 간혹 화장을 했다고 한다.⁷⁶ 탑장(塔葬)은 불교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보편적 장례법은 주검을 화장하고,⁷⁷ 유골이나 사리를 수습하여 탑에 안치하고, 무덤을 따로 조성하지 않는다. 불탑이 부처의 무덤이며, 부도(浮圖=浮屠)가 승려의 무덤인 승탑(僧塔)이거나 불자의 무덤인 묘탑(墓塔)이다. 그런데 탑총장은 토장(매장)처럼 총(塚)을 만들고, 탑장처럼 총탑(塚塔)도 함께 세운다. 신문왕(재위: 681-692)의 장례에서도 왕릉과 함께 석탑이 조성되었다.

星臺”; 장활식(2012a), 앞의 논문, 148-149쪽.

74 『世祖實錄』 卷 34, 10年 8月 6日. “又傳曰: ‘宗直分何學’ 對曰: ‘乃史學也’ 命勿學”

75 『佛說灌頂經』 卷 6. “佛語阿難 葬法無數 [...] 我此國土 水葬·火葬·塔塚之葬 其事有三”

76 『禪林象器箋』 卷 30, 喪薦門. “中國四葬 水葬投之江流 火葬焚之以火 土葬埋之岸旁 林葬棄之中野”; 하대룡,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방식의 검토」, 『제 36회 한국고고학회발표문』(2012), 389-400쪽.

77 상당수의 신라고승들은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가매장하는 빈전의례를 거친 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부도 밑에 매납했다고 한다(정길자, 「한국불승의 전통葬法연구」, 『승실사학』 제4집(1986), 151-173쪽; 엄기표, 「신라 승려들의 장례법과 석제부도」, 『문화사학』 제18집(2002), 105-171쪽; 홍성익, 「한국 古·中世 승려 墓塔의 지하석실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제45집(2019), 543-5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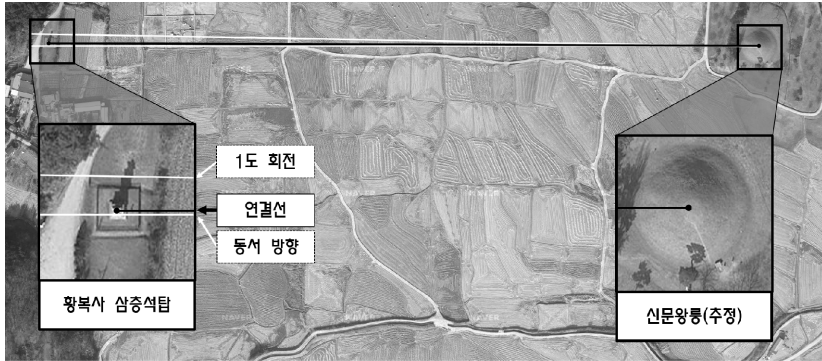


그림2- 황복사삼층석탑과 신문왕릉(추정)의 배치

그림2에서 신문왕릉으로 비정되는⁷⁸ 전(傳)진평왕릉으로부터 황복사삼층석탑이 거의 정서(正西)에 위치해 있다.⁷⁹ 황복사석탑은 신문왕비(=신목태후)와 효조왕(=효소왕)이 신문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세웠다.⁸⁰ 재위 12년(692) 7월 2일에 승하한 신문왕의 본장의례는 일출방향이 정동이었던 효소왕 2년(693)의 추분 이전에 종료되었을 듯하다. 그렇다면 신문왕의 왕생을⁸¹ 기원한 황복사삼층석탑의 꼭대기에도 허공의 층계가 있었어야 마땅한데, 일연은 그와 비슷한 층계가 있었다고 했다. 의상(625-702)이 무리들과 함께 황복사에서 탑돌이를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다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허공의 계단을 밟고 돌았다고 했다.⁸²

78 『三國史記』 神文王 12年 7月. “葬狼山東”; 김용성·강재현,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제15집(2012), 181쪽; 장활식, 「삼국유사 신주편 해통항릉조의 분석」, 『신라문화』 제52집(2018), 77쪽.

79 正西에서 시계방향으로 약 0.1도로 회전한 방향의 약 730m 지점에 있다.

80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神文大王 五戒應世十善 御民治定功成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 所以神睦太后·孝昭大王 奉爲宗廟聖靈禪院伽藍 建立三層石塔”

81 신문왕의 왕생처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문왕(재위: 861-875)은 도리천으로 왕생했다고 한다(『孤雲集』 卷 2, 「無染和尚碑銘」. “初利之行 有期矣 盍就一訣”).

82 『三國遺事』 義解, 義湘傳敎. “湘住皇福寺時與徒衆繞塔 每步虛而工不以階升”

탐총장은 늦어도 안함(=안흥)이 수(隋)에서 『관정경』을 들여온 진평왕 27년(605) 이후의 신라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진평왕(재위: 579-632)의 장례는 탐총장이었을 듯하다. 영묘사는 “조상의 영혼을 모신”⁸³ 원찰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장의례가 거행된 한지(漢只)의 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탐총장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선덕여왕(재위: 632-647)의 장례는 「선덕왕지기삼사」조의 서술,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배치, 안함(=안흥)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탐총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당(唐)의 제도를 적극 수용했던 선덕여왕(재위: 647-654)과 태종무열왕(재위: 654-661)은 당(唐)의 장례규정을 따랐을 듯하다.⁸⁴

나당전쟁(670-676) 이후에 문무왕(재위: 661-681)은 신라의 전통적 장례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문무왕의 장례과정에서 능(陵)과 대(臺)가 세워졌음은 분명하다.⁸⁵ 그러나 문무왕은 승천을 포기하고 신라의 호국대룡으로 환생코자 했고, 또한 유혼을 위한 능허대를 쌓지 말라고⁸⁶ 했으므로 이견대와 첨성대의 성격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신문왕(재위: 681-692)의 장례는 그림2를 볼 때,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탐총장이었을 듯하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유혼의 도리천 상생을 위함이었고, 안함(=안흥)이 주창한 신라불국토설과 안함(=안흥)이 들여온 『관정경』을 교리적 근거로 축조된 밀교적 성격의 총탑(塚塔)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83 신종원(1996), 앞의 논문, 63쪽.

84 재위 8년(661) 6월에 승하한 태종무열왕의 본장의례는 문무왕 원년(661) 10월 29일 이전에 거행되었다(『三國史記』文武王 1年 10月 29日. “平壤軍糧”; 『三國史記』文武王 11年 7月 26日, 答薛仁貴書. “先王薨 送葬繼訖 喪服未除 [...] 平壤軍糧”). 『예기』의 빈전의례기간과 대략 일치한다(『禮記』王制.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85 「신라문무대왕릉비」(682)는 문무왕릉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음을 말한다. 이견대의 원래 목적은 문무왕의 추모에 있었다(『三國遺事』紀異, 万波息笛. “後見龍現形 名利見臺”; 『世宗實錄』卷 150, 慶州府, 利見臺. “葬後追慕 築臺望之”).

86 『三國史記』文武王 21年 7月. “魏主西陵之望 唯聞銅雀之名 [...] 空勞人力 莫濟幽魂”

다섯째, 『삼국유사』에서 첨성대 착공연대를 살펴본다. 선덕여왕 덕만은 진평왕 4년(582)경에 태어났고, 즉위년(632)에는 고대의 기준으로 젊지 않은 50살 내외였다고 추정된다.⁸⁷ [가-1]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무탈했을 때인 재위 5년(636) 3월 이전에⁸⁸ 왕릉의 위치를 결정했을 것인데, 그림1을 보면 첨성대의 위치도 거의 동시에 결정했을 듯하다.

그렇다면 선덕여왕 5년(636) 3월 이전에 산릉으로 가는 길을 닦고, 왕릉이 들어설 주변을 정리하고,⁸⁹ 첨성대의 주변도 정리했을 듯하다. 첨성대는 오래 전부터 들판에 덩그러니 남아있지만,⁹⁰ 축조 당시에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봐야 한다.⁹¹ 선덕여왕 5년(636) 이전에 왕릉과 첨성대가 축조될 장소를 중심으로 모종의 공사가 시작되었을 듯하다.

왕릉은 왕의 승하 이후에 조성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대비했던 후한의 광무제(재위: 25-57), 고려의 공민왕(1220-1374), 조선의 태조(1335-1408) 등은 수릉(壽陵)을 생전에 작(作)했다.⁹² 장례를 위한 대(臺)나 탑(塔)도 죽음 이후에 건립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한 말의 조조(曹操: 155-220)는 동작대를 생전에 쌓았고, 조선태조도 왕사(王師) 자초(=무학: 1327-1405)의 승탑을 예조(預造)토록 했다.⁹³

87 정용숙, 「新羅 善德王代の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4), 255쪽; 신종원(1996), 앞의 논문, 46쪽.

88 『三國史記』 善德王 5年 3月. “王疾 醫禱無效”. 주보돈(『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일조각, 1994), 213쪽)은 재위 5년(636) 이후에 “선덕왕의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 했다.

89 장활식(2017), 앞의 논문, 54쪽.

90 『梅月堂詩集』 卷 12, 問瞻星臺. “此是仰觀修德器 如何眞眞故城傍”; 『拙翁集』 卷 7, 鷄林錄. “瞻星有臺 于彼中野 明月有巷 未詳何所”

91 『石堂遺稿』 卷 2, 東京訪古記. “姜丞曰不然 必城中也”; 『琴湖遺稿』 卷 1, 花山紀行. “向晚尋江寺 寺東石作臺”; 이강식(1998), 앞의 논문, 42-51쪽.

92 『東溟集』 卷 21. “漢光武 初作壽陵”; 『高麗史節要』 卷 29, 恭愍王 21年 4月. “作壽陵於正陵之西”; 『太祖實錄』 卷 10, 5年 12月 24日. “幸壽陵”

93 『太祖實錄』 卷 12, 6年 7月 22日. “徵畿民 預造王師自超浮屠 於檜巖之北”

여섯째, 『삼국유사』에서 첨성대 완공연대를 살펴본다. 일연은 『별기』를 근거로 선덕여왕대의 “축첨성대(築瞻星臺)”라고 서술했다. 그런데 첨성대 축조를 발원한 안함(=안흥: 579-640)은 선덕여왕 9년(640)에 입적했고, 그의 참서인 『별기』는 사후적 예언과 사전적 예언을 모두 담고 있었다.⁹⁴

“축첨성대”가 안함(=안흥)의 사후적 예언이었다면, 첨성대는 안함(=안흥)의 입적 이전에 실현되었을 것이다. 사전적 예언이었다면, 입적 이후에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전적 교시였다고 할지라도, 선덕여왕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⁹⁵ 안함(=안흥)의 교시를 이내 실현시키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듯하다. 따라서 완공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선덕여왕 9년(640)에 공사기간을 더한 연대를 넘기지는 못했을 것 같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죽음보다는 이전에 완공되었다고 추정된다.⁹⁶

본 연구는 『별기』를 밀교승려 안함(=안흥)의 참서로 판단한다. 첨성대는 안함(=안흥)이 주창한 신라불국토설과 『관정경』의 탑총장을 교리적 근거로 선덕여왕의 도리천 상생을 위해 축조된 총탑으로 본다. 『삼국유사』에서 첨성대는 선덕여왕 5년(636) 이전에 착공되었고, 선덕여왕 몰년(647) 이전에 완공되었다고 추정되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선덕여왕대설은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설과는 상충하지 않지만, 『삼국사절요』의 몰년설과 일견 상충하는 듯하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2년설과 몰년설을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

94 事後的 예언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꾸미는 거짓예언을 말하며, 事前的 예언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언을 말한다(장활식(2015), 앞의 논문, 258-259쪽;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36-42쪽).

95 장활식(2016), 앞의 논문, 110쪽.

96 『별기』의 첨성대관련 내용은 사후적 예언과 사전적 예언이 결합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첨성대의 착공이 안함(=안흥: 579-640)의 생전으로 판단되며, 선덕여왕의 도리천 장례가 안함의 입적보다 이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하더라도 첨성대의 완성시점은 선덕여왕의 생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종실록』지리지(1432)의 선덕여왕 2년설

『세종실록』(1454)의 지리지는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를 전채하고,⁹⁷ 4군 6진의 연혁만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대]는 『신찬팔도지리지』(1432)의 서술로 봐야한다. 선덕여주(女主)가 정관 7년(633)인 재위 2년(633)에 첨성대를 “소축(所築)”했다고 서술되어있다.

[대] 첨성대: 경주부성의 남쪽 모퉁이에 있다. 당태종 정관 7년(633) 계사에 신라 선덕여주가 쌓았다. 돌을 포개어 위는 사각형, 아래는 둥글게 했다. 높이가 19척 5촌, 위 둘레가 21척 6촌, 아래 둘레가 35척 7촌이다. 가운데가 뚫려있어 사람들이 오를 수가 있다(『세종실록』 권 150, 경주부).⁹⁸

첫째, [대]는 세종 8년(1426) 12월경부터 세종 12년(1430) 12월경까지에 경주부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추정된다. 『신찬팔도지리지』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서술시점과 서술주체가 드러난다.

『신찬팔도지리지』 편찬은 세종 6년(1424) 11월 15일의 왕명으로 시작되었다. 세종 6년(1424) 12월 1일에 춘추관이 지리지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팔도와 하위관청에게 명령했고, 7년(1425) 6월 2일에 예조가 기초자료 정리규정과 보고서 양식을 담은 규식(規式)을 팔도와 하위관청에게 하달했고, 같은 날인 6월 2일에 춘추관은 『신찬팔도지리지』 편찬에 필요한 서적들을 충주서고에서 반출했다.⁹⁹

97 『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序文. “撰是書 歲壬子書成”

98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州府 瞻星臺. “在府城南隅 唐太宗貞觀七年癸巳 新羅善德女主所築 累石爲之 上方下圓 高十九尺五寸 上周圍二十一尺六寸 下周圍三十五尺七寸 通其中人由中而上”

99 『世宗實錄』 卷 28, 7年 6月 2日. 『慶尙道地理志』 序文; “令忠州尋覓上送”

세종 7년(1425) 12월 1일에 팔도는 각각의 부주군현(府州郡縣)이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각도(各道)의 지리지를 완성해 춘추관으로 제출했을 것이다.¹⁰⁰ 춘추관은 충주서고에서 반출한 문헌 등을 기초로 팔도의 지리지들을 검정·취합·수정·보완하여 『신찬팔도지리지』 초본을 세종 8년(1426) 6월경에 세종에게 진상했을 듯싶다. 『신찬팔도지리지』는 그림3과 같이 기초행정단위의 서술을 팔도와 춘추관이 종합하는 형태로 편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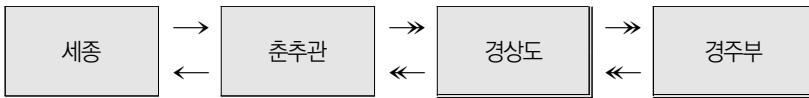


그림3-『신찬팔도지리지』의 편찬과정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의 초본(1425)에는 [다]가 없으며, 첨성대에 관한 서술 자체가 아예 없다.¹⁰¹ 세종은 『신찬팔도지리지』의 초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는데,¹⁰² 그 과정에서 [다]가 추가되었음이 분명하다. 예조가 규식을 수정하여 팔도로 다시 하달했던 시점은 세종 8년(1426) 12월 이후, 경상도가 수정본 『경상도지리지』를 완성하여 춘추관에 제출했던 시점은 세종 12년(1430) 12월로 추정된다.¹⁰³

100 경상도는 세종 7년(1425) 12월 1일에 『경상도지리지』의 초본을 완성해 춘추관으로 제출했다(『慶尙道地理志』 序文. “崑大歲乙巳冬十有二月朔日丙寅”).

101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관지리지』(불함문화사, 1976), 23-29쪽.

102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I)」, 『역사학보』 제69집(1976), 84쪽;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 제24집(1993), 2150쪽; 서인원,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의 재검토(I)」, 『역사와 교육』 제8집(1999), 233쪽.

103 김동수는 『경상도지리지』 수정본의 완성시점 하한을 세종 13년(1431)의 초반으로 보았다. 당시의 주요보고서 제출기한은 주로 12월, 1월이었고, 경주부윤의 교체시점도 역시 주로 12월이었으므로 본 연구는 세종 12년(1430) 12월에 『경상도지리지』 수정본이 춘추관에 제출되었다고 본다. 김동수(1993), 위의 논문, 2152쪽.

둘째, [다]의 침성대 축조연대는 경주부윤¹⁰⁴ 조완(미상-1441)의 지휘 하에 있었던 경주부의 관원들에 의해 옛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고 추정된다. [다]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의 초안은 경주부에서 서술되었을 것이다. [다]에는 침성대의 위치, 축조연대, 형태, 실측결과, 통행방법이 적혀있는데, 축조연대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현장에서 수집되어야만 하는 성격이다. 특히 [다]의 실측조사 결과는 경주부에서 서술되었음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축조연대도 역시 경주부에서 서술되었다고 봐야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의 '정관 7년'이 경주부의 관원들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종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분란을 일으켰던¹⁰⁵ 조완이 지리지편찬과 같은 국가적 중요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또한 편년체나 기년체의 사서가 아닌 지리지가 어떤 기록을 특정연대에 임의로 '배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관 7년(633)이 유년칭원법의 선덕여왕 원년(633)을 지칭할 리도 없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기록에 유년칭원법을 소급해 적용하지를 않았다.¹⁰⁶

춘추관이 충주서고에서 기초문헌을 확보했듯이 경주부도 관현의 서고 등에서 기초문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임진왜란 이전의 경주부는 약간의 신라기록을 보유했었다는데,¹⁰⁷ [다]의 서술시점에 안함(=안흥)의 참서가 유통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¹⁰⁸ 한성부를 제외한다면, 유통의 중심지가 경주부였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04 조완(미상-1441)은 세종 8년(1426) 12월부터 세종 13년(1431) 7월까지 경주부윤을 지냈다(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시사』 권 1, 2007, 496쪽).

105 『世宗實錄』 卷 11, 3年 1月 11日. “今趙琬所啓之事 雖曰關係社稷 勢非甚急”

106 『三國史記』脫解尼師今 9年 3月. “有鷄鳴聲”; 『慶尙道地理志』, 慶州府, 沿革. “脫解王九年 始林有雞怪”; 『世宗實錄』 卷 150, 慶州府, 沿革. “脫解王九年乙丑 始林有雞怪”

107 『慶州先生安』. “新羅古都也 前古流傳可關古跡盡亡於兵火 [...] 新羅始祖世系譜等若干”

108 『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安舍·老元·董仲 三聖記』 [...] 等文書 不宜藏於私處”

셋째, [다]의 '정관 7년'은 경주부가 첨성대의 착공연대로 서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부가 사건을 기록할 때에 적용했던 연대기준을 현존하는 『경상도지리지』의 초본(1425)에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영묘사에 대해 『삼국사기』(1145)는 “선덕왕 4년(635)에 완성했다”고 했고, 『삼국유사』(1284±)도 “을미년(635)에 처음 열렸다”라고 했다.¹⁰⁹ 그러나 『경상도지리지』(1425)와 『세종실록』지리지(1432)는 정관 6년(632)의 “소창(所創=所創)”이라 했다.¹¹⁰ 경주부가 기록한 영묘사연대인 ‘정관 6년(632)’은 첨성대연대인 ‘정관 7년(633)’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김정호(1804-1866)의 견해대로 영묘사가 선덕여왕 원년(632)에 착공되어, 4년(635)에 완공되었다면,¹¹¹ 경주부는 영묘사연대를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했음이 분명하다.

봉덕사종의 연대는 『경상도지리지』(1425)에 대력 5년(770), 『세종실록』지리지(1432)에 대력 6년(771)로 적혀있다.¹¹² 선덕대왕신종은 대력 5년(770) 12월에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하여, 대력 6년(771) 12월 14일에 완성되었다.¹¹³ 따라서 경주부가 옛적부터 전해진 사적(史跡)을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가 있다. 첨성대의 경우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봐야 무리가 없다. 경주부가 연대서술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정관 7년’은 첨성대의 착공연대로 서술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109 『三國史記』 善德王 4年. “靈廟寺成”; 『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 “善德王乙未始開”

110 『慶尙道地理志』 慶州府, 靈妙寺. “唐太宗貞觀六年 新羅善德王時所創也”; 『世宗實錄』 卷 150, 慶州府, 靈妙寺. “唐太宗貞觀六年 新羅善德女主所創也”. 춘추관에서 ‘善德王’을 ‘善德女主’로 폄하하고, ‘時’를 삭제하고, ‘創’을 ‘創’으로 고쳤음을 알 수 있다.

111 『大東地志』 卷 7, 慶州. “靈妙寺西五里 善德主元年 創建三層殿宇 四年而成”

112 『慶尙道地理志』 慶州府. “亡寺奉德鐘 大曆五年 新羅惠恭王時所鑄也”; 『世宗實錄』 卷 150, 慶州府, 奉德寺. “唐代宗 大曆六年辛亥 新羅惠恭王所鑄”

113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 “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徙”; 「聖德大王神鐘之銘」.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 최영성, 「聖德大王神鐘의 銘文研究」, 『한국철학논집』 제56집(2018), 31쪽.

3. 『삼국사절요』(1476)의 선덕여왕 몰년설

서거정(1420-1488), 이파(1434-1486) 등이 성종 7년(1476)에 완성한 『삼국사절요』에는 선덕왕 몰년(647) 1월에 “신라가 작첨성대(作瞻星臺)를 했다”라고 서술되어있다. [라-2]의 “작첨성대” 등의 기록이 [라-3]의 선덕여왕 죽음 직전에 배치되어있다.

[라-1] 신라에서 비담, 염중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고자 하니, 왕이 궁성 안에서 방어했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둔취했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응거하여 10일 동안 공방전을 벌였다. 이튿날 김유신이 주문을 지어 외우고, 장졸들을 동독하여 분격하니 비담 등이 패배해 달아났다.

[라-2] 신라가 첨성대를 만들었다. 돌을 포개어 쌓았는데, 위는 사각형, 아래는 둥글다. 가운데가 뚫려있어, 사람이 가운데로 오를 수가 있다. 높이가 여러 장(丈)이다.

[라-3] 신라왕 덕만이 승하하여, 시호를 ‘선덕’이라 하고, 낭산에 장사지냈다 (『삼국사절요』, 신라선덕왕 16년 1월).

선덕여왕 몰년(647) 1월 7일경에 선덕여왕의 죽음을 준비하는 와중에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고, 8일에 비담이 침범하지 못한 월성에서 선덕여왕이 자연사했다고 여겨진다.¹¹⁴ 선덕여왕의 관림의례가 종료되었을 진덕여왕 원년(647) 1월 17일에 김유신(595-673)이 비담을 제압하고 처형했다.

114 『三國史記』善德王 16年 1月. “八日 王薨 諡曰善德 葬于狼山”; 주보돈(1994), 앞의 논문, 212-215쪽; 『三國史記』卷 41, 列傳 1, 金庾信 上, 善德大王 十六年丁未; 『三國史記』眞德王 1年 1月 17日.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첫째, [라]의 서술자를 살펴본다. 『동국통감』의 부산물인 『삼국사절요』는 세조 4년(1458)에서 성종 7년(1476)까지 동국통감청 등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관료들에 의해 서술되었고, 세조대(1455-1468)에 다단계의 검정과정을 거쳤다. 세조가 완벽을 기했던 『동국통감』(1484)은 당대에 완성되지 못했고, 고려 이전까지의 역사만을 정리한 『삼국사절요』가 서거정(1420-1488) 등에 의해 성종 7년(1476)에 완성되었다.

둘째, 편찬자들이 『삼국유사』의 선덕여왕대설과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설을 보았는지를 살펴본다. 편찬자들은 세조의 명령을 받들어¹¹⁵ 『삼국사기』(1145)가 탈락시킨 기록들을 박인량(미상-1096)의 『수이전』, 일연의 『삼국유사』, 권근(1352-1409)의 『동국사략』(1403) 등으로 보완했다.¹¹⁶ 따라서 편찬자들이 『삼국유사』의 선덕여왕대설을 보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편년체인 『삼국사절요』에 축조연대를 ‘선덕여왕대’로 서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조는 『동국통감』 편찬을 명령하면서, “여러 서적들을 참조하여, 해당 연도 아래에 기록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었다.¹¹⁷

『삼국사절요』 편찬자들은 『신찬팔도지리지』(1432), 『세종실록』(1454)의 지리지, 혹은 이런 지리지들의 저본에서 2년설도 보았다고 추정된다. 『삼국사절요』의 첨성대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의 요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¹¹⁸ 편찬자들은 ‘정관 7년(633)’이라는 축조연대를 『신찬팔도지리지』 또는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첨성대 관련기록을 선덕여왕 16년(647) 1월에 ‘배치’했다고 판단된다.

115 『世祖實錄』 卷 14, 4年 9月 12日. “命文臣撰東國通鑑 上以本國書記脫落未悉”

116 『四佳集』 卷 4, 三國史節要序. “第取舊史及史略 兼採遺事·殊異傳 作長編”

117 『世祖實錄』 卷 14, 4年 9月 12日. “合三國·高麗史作編年書 令旁採諸書 纂入逐年之下”

118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瞻星臺. “累石爲之 上方下圓 高十九尺五寸 上周圓二十一尺六寸 下周圓三十五尺七寸 通其中人由中而上”; 『三國史節要』 善德王 16年 正月. “新羅作瞻星臺 累石爲之 上方下圓 通其中人由而上 高數丈”; 정구복, 「삼국사절요에 대한 史學史的 高찰」, 『역사교육』 제18집(1975), 119쪽.

셋째, 『삼국사절요』 편찬자가 어떤 근거로 첨성대기록을 선덕여왕 몰년에 배치했는지를 살펴본다. 서거정은 사건의 불명확한 연대를 “기지표전(紀志表傳)을 종합하고, 대략의 토론을 거치고, 본말과 시종을 연구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¹¹⁹ 그런데 편찬자들의 적어도 일부는 사서, 지리지, 연표, 전기는 물론이고, 비기(秘記)도 참조했었음이 분명하다.

세조는 『동국통감』 편찬을 위해 특별히 관고의 내장서책들을 내주었는데,¹²⁰ 서거정은 이런 “옛 서책들을 상고해 의심을 덜 수가 있었다”라고 했다.¹²¹ 세조 3년(1457)에 금서로 지정된 『안함·노원·동중 삼성기』는 진상되어 궁궐서고에 보관되었을 것이므로¹²² 서거정이 『안함기』 즉 『별기』를 직접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절요』의 축조연대가 모두 『안함기』(=『별기』)에 기초해 서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나-1]의 시문 등을¹²³ 볼 때, 서거정은 일연과 마찬가지로 첨성대의 본질에 대해 잘 알았던 듯하다.

넷째, 선덕여왕 죽음 직전에 배치된 “작첨성대”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다. 단순히 해석하면, 선덕여왕의 죽음 직전에 ‘첨성대를 만들었다’라는 뜻일 듯하다. ‘작대(作臺)’와 ‘축대(築臺)’는 거의 같은 뜻일 수가 있다.¹²⁴ 그러나 『삼국유사』가 “축첨성대(築瞻星臺)”, 『세종실록』지리지에 “소축(所築)”이라 했음에도 『삼국사절요』가 “작첨성대(作瞻星臺)”로 표현을 달리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가 있다.

119 『東文選』 卷 11, 進三國史節要箋. “撫紀志表傳 而粗嘗討論 究本末始終 而妄加刪定”

120 『世祖實錄』 卷 35, 11年 1月 19日. “又出內藏書冊 分付文臣抄之”

121 『四佳詩集補遺』, 卷 3. “撰『三國史節要』 歷考諸書 稷之爲百濟始都 無疑矣”

122 『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123 『四佳集』 卷 12, 余早識岑上人……. “瞻星臺下白雲堆”; 『四佳集』 卷 10, 送尹同年子潔……. “安得月明携玉笛 瞻星臺上共徘徊”; 장활식(2017a), 앞의 논문, 55-57쪽.

124 『世宗實錄』 卷 50, 12年 11月 12日. “俱於公廡後築臺 立旗纛廟”; 『世宗實錄』 卷 93, 23年 8月 18日. “請於書雲觀作臺”; 『中宗實錄』 卷 1, 1年 9月 2日. “築臺高百餘尺”

침성대는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작’보다는 ‘축’이 적절한 표현일 듯하고, ‘작’에는 작례(作禮), 작법(作法), 작단(作壇)에서와 같이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¹²⁵ 작대(作臺)가 불교의 폐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허다하다.¹²⁶ 문무왕은 “유혼을 위해 대(臺)를 쌓는 일을 즐겨 말라”고 했고, 이황(1501-1570)은 “작대(作臺)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¹²⁷ “작침성대”는 부정적 의미로 ‘침성대를 행했다’라는 뜻일 수가 있다.

문무왕(626-681)은 조조(155-220)의 동작대(銅雀臺)와 같은 능허대가 유혼을 구제하지는 못하며, 그런 일을 즐겨 말라고 했다. 한편 북송(北宋)의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태수 진희량(陳希亮: 1014-1077)이 능허대를 지을 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끌며 그 아래를 거닐었다”라고 했고,¹²⁸ 이황(1501-1570)은 “늙은 여인이 돌을 쌓아 작대(作臺)를 하고, 매일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끌며 그 위를 거닐었는데, 단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다.¹²⁹ ‘늙은 여인’을 뜻하는 고(姑)가 성조황고(聖祖皇姑)를¹³⁰ 지칭했다면, 이황도 역시 침성대의 본질을 능허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문무왕과 이황은 침성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작대로 보았다고 단정해도 무방할 듯하다.¹³¹

125 『佛說灌頂經』 卷 7. “聞經歡喜作禮奉受”; 『佛說灌頂經』 卷 1. “為諸惡師作雜毒法”;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作壇刑白馬”

126 『中宗實錄』 卷 6, 3年 5月 7日. “昔之民疲於作臺 今之民疲於寺宇”; 『龔巖集』 卷 1, 年譜. “退溪先生後有累石作臺非好事”; 宋達洙, 『守宗齋集』 卷 8, 南遊日記, 瞻星臺. “枉費民力何益於國 下圓上方 體象顛倒 亦非人君定位之法也”

127 『三國史記』 文武王 21年 7月. “魏主西陵之望 唯聞銅雀之名 [...] 空勞人力 莫濟幽魂 [...] 如此之類 非所樂焉”; 李滉, 『退溪集』 卷 3, 礪石臺踏青. “壘石作臺非好事”

128 『蘇東坡全集』 卷 35, 凌虛臺記. “方其未築也 太守陳公 杖屨逍遙於其下”

129 李滉, 『退溪集』 卷 33, 答金應順. “姑累石作臺 日杖屨逍遙於其上 亦足以自遣”

130 『三國史記』 善德王 元年. “國人立德曼 上號聖祖皇姑”

131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에 기초한 사천왕사를 완성했던 문무왕이 침성대만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일관성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사천왕사는 신라불국토를 위함이었고, 침성대는 선덕여왕 개인을 위함이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선덕여왕대에 밀교가 매우 성행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³² 김시습(1435-1493)은 선덕여왕이 괴특(怪慝)을 숭상하고, 신이(神異)에 환호했다고 했다.¹³³ 밀교의 괴특과 신이는 부처·보살 등이 천신·용신 등에게 부여한 신력(神力)이나 밀교승려가 신주(神呪)와 밀단(密壇)을 통해 발휘하는神通력(神通力)에서 비롯된다.¹³⁴ 따라서 “작침성대”는 작단법(作壇法)의 실행을 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돌이켜보면, 밀교승려 안함(=안홍)이 교시한 도리천장례와 침성대축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주와 밀단이 실행되지 않았을 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작침성대”는 침성대의 착공이나 완공이 아니라 ‘침성대에서의 작단법 실행’을 말한다고 추정된다.

선덕여왕의 죽음 직전에 침성대에서 작단법을 행했을 듯하다. 『관정경』의 제12권은 7개의 등(燈)을 수레바퀴처럼 7층으로 매달고, 오색의 신번(神幡)을 49척으로 매달고, 「관정장구십이신왕결원신주」를 읊어 생명을 연장한다고 했다.¹³⁵ 선덕여왕의 죽음 직후에도 침성대에서 밀단법을 실행했을 듯하다. 『관정경』의 제6권은 성왕(聖王)이 승하하면, 정갈한 길목에 세워진 총탑의 표찰에 비단으로 만든 오색 신번을 49척으로 내걸고, 「관정장구무상총지대신주」를 읊어 사된 귀신과 악마를 내쫓는다고 했다.¹³⁶ 『삼국사절요』의 선덕여왕 몰년(647) 1월에 배치된 “작침성대”는 선덕여왕의 죽음에 즈음한 ‘침성대에서의 작단법 실행’을 뜻하는 듯하다.

132 신중원(1992), 앞의 논문, 186쪽; 신중원(1996), 앞의 논문, 58쪽.

133 『梅月堂集』 卷 12, 善德王陵. “治則無聞崇怪慝 一生好事無與比 大喜浮屠神異事”

134 장활식(2018), 앞의 논문, 73쪽.

135 『佛說灌頂經』 卷 12. “勸然七層之燈 亦勸懸五色 續命神幡 [...] 灌頂章句 十二神王結願神呪”. 『관정경』의 尺을 周尺(=20.6cm)으로 보면, 신번의 길이는 약 10.1m이다. 현재 침성대의 높이는 약 9.1m이지만, 원형의 상륜부에 表刹이 있었을 듯하다(『甚希有經』 卷 1. “樹以表刹量如大針”).

136 『佛說灌頂經』 卷 6. “於四衢道頭露淨之處 起于塚塔表刹高妙高四十九尺 [...] 灌頂章句無上總持大神呪經 若有恐怖遊行塚墓”

IV. 첨성대의 착공연대와 완공연대

진평왕은 재위 54년(632) 1월에 승하했다.¹³⁷ 선덕여왕은 11-12월경에 본장의례를 치르고, 재위 2년(633) 1-2월경에 상장의례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치세를 전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덕여왕의 종교적 배후에는 즉위의 교리적 명분을 제공했던 밀교승려 안함(=안흥)이 있었다.

선덕여왕은 재위 2년(633)에 왕릉과 첨성대의 위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을 듯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부왕의 상장의례를 끝낸 그 해에 자신의 도리천장례를 위한 수릉과 총탑의 축조에 착수했을 것인데, 이런 괴특한 일은 안함(=안흥)의 신라불국토설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을 듯하다. 수릉과 총탑의 착공을 서둘렀다면, 첨성대 착공시점은 선덕여왕 2년(633)의 2-3월이었을 수도 있겠다. 첨성대 축조를 그리 조금씩 추진했다면, 조속히 완성했을 가능성도 높겠다. 첨성대가 선덕여왕 2년(633)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첨성대 완공연대는 문헌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¹³⁸ 따라서 착공연대로 추정되는 선덕여왕 2년(633)에 공사기간을 더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첨성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개념적 설계를 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지반공사를 하고, 채석장을 찾고, 석재운반도로를 닦고, 석재를 채취하고, 채취된 석재를 작업장으로 옮기고, 석재를 다듬고, 다듬어진 석재들을 쌓는 등의 다양한 작업들이 수행되었을 것이다.

137 『三國史記』眞平王 54年 1月. “王薨 諡曰眞平 葬于漢只”

138 이강식(1998), 앞의 논문, 44쪽; 박창범(2009), 앞의 발표문, 47쪽; 정연식(2009), 앞의 논문, 362쪽; 김명숙(2016), 앞의 논문, 162쪽은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설을 근거로 첨성대가 선덕여왕 2년(633)에 완공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2년설은 첨성대 완공이 아닌 착공을 말한다고 봐야 옳을 상 싶다.

전통건축전문가 송민구(1981)는 첨성대 공사에서 채석작업과 운반작업을 제외하면, “석공 연 2,300명과 인부 연 1,400명 정도의 작업량 밖에는 안 되는” 소규모의 공사라고 했다.¹³⁹ 석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매일 석공 23명과 인부 14명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면, 100일이면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추정이다. 한편 경영학자 이강식(1998)은 주변의 부속건물들을 제외하고, “첨성대만 보면 선덕왕 즉위 원년(632)에 계획하여 즉위 2년(633)에 준공하였을 것”이라 하여, 축조기간을 약 1년으로 추정했다.¹⁴⁰

지반공사는 지름이 11m-12m인 둥근 형태를 1.2m-3m의 깊이로 파낸 뒤에 흙과 잡석을 섞어서 다지고, 0.4m-1.2m의 깊이부터는 한 번의 길이가 약 7m인 정사각형의 형태로 다진 형태라고 한다.¹⁴¹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파낸 흙의 부피는 대략 218m³이다. 흙의 강도, 땅의 깊이, 날씨, 작업자 등에 따라서 작업효율이 상당히 달라지며, 1m³의 지표면을 혼자서 삽으로 파내는 데에는 대략 4-8시간 혹은 며칠이 걸린다고 한다.¹⁴² 땅의 깊이, 고대인의 노동력, 도구 등을 대략 감안하여 1m³의 흙을 혼자서 파내는 데에 2일이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흙을 파내는 데에만 연 436명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판축작업에도 같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지반공사는 대략 연 872명의 작업량으로 추정된다. 구덩이 안에서 1명의 작업공간을 4m²로 보면, 약 26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투입될 수 있었고, 같은 수의 인원이 구덩이 밖에서 지원했다면 52명의 작업자가 투입될 수 있었다. 지반공사는 매우 대략적이지만 17일 정도가 걸렸다고 추정된다.

139 송민구, 「경주 첨성대 실측 및 복원도에 의한 비례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1981), 58쪽.

140 이강식(1998), 앞의 논문, 44쪽.

141 오현덕, 「GPR 탐사를 통한 첨성대 주변 지하유구 분석」, 『첨성대 창으로 본 하늘 위 역사문화콘텐츠』, 2019년 6월 14일 학술발표회, 14-40쪽.

142 잡다한 질문에 경험자가 답하는 www.quora.com에서 얻은 견해들이다.

첨성대 석재는 인근의 남산에서 채취되었다고 한다.¹⁴³ 채석장을 찾고, 운반도로를 닦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진평왕대에 비형이¹⁴⁴ 귀신들의 무리에게¹⁴⁵ 명령해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귀교를 놓았다고 하므로 기존의 채석장과 도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첨성대의 석재무게는 대략 기단부가 61.1톤, 몸통부(1-27단)가 181.0톤, 상층부가 4.9톤으로 총 247톤 정도이다.¹⁴⁶ 석재의 40%가 치석(治石)과정에서 탈락되었다면, 채취된 석재는 약 412톤에 달했을 것이다. 물론 전량을 작업장으로 이동한 이후에 치석을 시작했을 리는 없을 듯하며, 필요한 만큼의 석재를 그때그때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인력만 있었다면, 채석·운반작업은 치석작업과 상당히 병행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치석작업량은 송민구(1981)의 추정치를 따르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첨성대 내부의 1-12단에 채워진 흙의 무게는 약 45톤으로 추정된다.¹⁴⁷ 다듬은 석재들을 쌓으면서 하단의 내부에 흙을 채워 넣는 작업도 충분한 노동력만 있었다면 치석작업과 상당히 병행될 수가 있었을 듯하다. 귀교를 쌓았다는 토목·건축의 달인들이 순차적으로 가공된 석재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면, 별도의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황사, 영묘사, 첨성대 공사에 군사들이 동원되었다면 인력조달의 문제는 없었을 듯하다.

14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 조사보고서』(2009), 80쪽.

144 『三國遺事』紀異, 桃花女·鼻荊郎. “鍊石成大橋 於一夜”. 진평왕 원년(579)에 진지왕의 유복자로 태어난 비형이 다름 아닌 안함(=안흥: 579-640)이었다는 견해가 있다(장활식, 「비형랑과 목랑신앙」, 『신라문화』 제50집(2017b), 197-204쪽).

145 신종원(「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 보이는 ‘귀신’세력」, 『신라사학보』 제14집, (2008), 20쪽)은 ‘귀신’세력이란 진지왕대(576-579)에 관직을 가졌던 승려들과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동원했던 인부들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146 필자가 국립문화재연구소(2009)의 실측도면으로 추정한 값이다.

147 현재 첨성대의 하단 내부는 흙, 잡석, 폐석재 등으로 채워져 있다. 위의 추정치는 흙으로만 채워졌다고 가정했으므로 실제 값보다는 작다고 봐야 옳다.

첨성대 축조계획과 설계가 면밀히 준비되었고, 시공이 매우 순조로웠다면, 선덕여왕 2년(633)에 첨성대가 완공되었을 수가 있겠다. 석재의 내부가 매우 거칠게 다듬어진 점을 보면, 첨성대 축조를 서둘렀을 듯하다. 그러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흔적들도 발견된다.

첫째, 지반공사의 범위와 첨성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오현덕(2019)은 그림4에서¹⁴⁸ 타원형 지역이 깊이 3.0-1.2m로 판촉되었고, 그 이후에 사각형 지역이 깊이 1.2-0.4m로 판촉되었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타원형의 중앙에서 사각형이 상당히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타원형으로 판촉을 대략 1.2m까지 진행한 이후에 첨성대를 세울 위치가 타원형의 정중앙이 아님을 뒤늦게 발견하고,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각형의 지반공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런 시행착오는 반복된 측량작업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켰을 수가 있겠다.¹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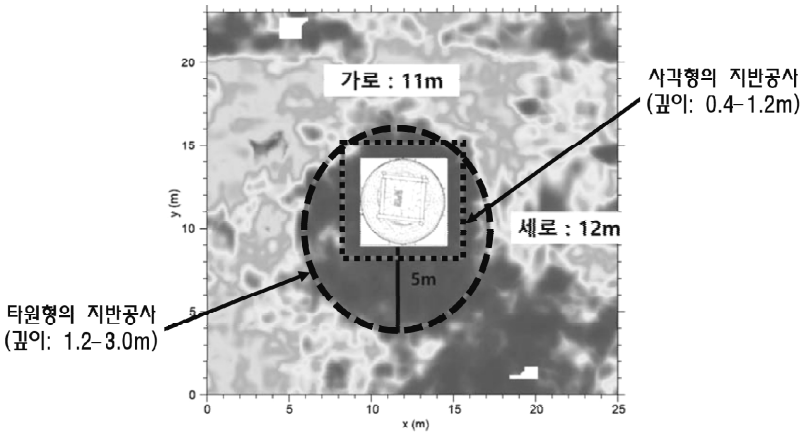


그림4- 첨성대의 위치와 첨성대 기반공사의 범위

148 오현덕(2019) 앞의 발표문, 34쪽의 그림에 필자가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149 현재 첨성대에서 부등침하가 가장 심한 곳이 북쪽 기단부분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의 보고서, 92쪽). 물론 부등침하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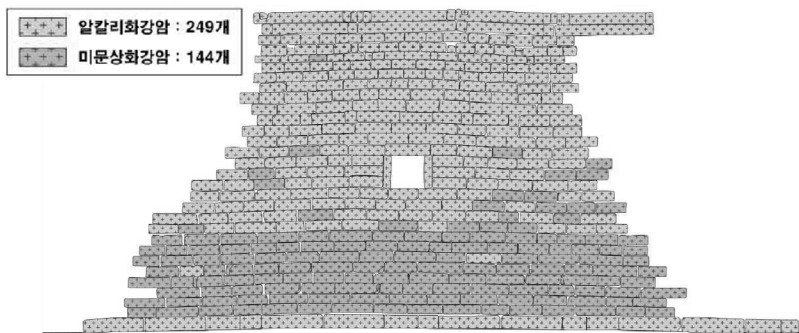


그림5-알칼리화강암과 미문상화강암의 분포도

둘째, 첨성대 석재의 암석종류가 축조단계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림5에서¹⁵⁰ 상단의 옅은 색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알칼리 화강암, 하단의 진한 색은 강도가 높은 미문상 화강암이다. 남산은 주로 알칼리 화강암이며, 미문상 화강암도 함께 발견되는 곳은 첨성대에서 거리가 멀다.¹⁵¹

그림5에서 기단석에 알칼리 화강암을 깔고, 몸통부 하단의 1-8단부터 미문상 화강암을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도가 높은 미문상 화강암은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기단석부터 사용했어야 이치에 맞다. 따라서 그림5는 채석이 용이했던 알칼리 화강암으로 기단부를 만든 이후에 강질의 미문상 화강암을 조달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런 석재구성의 변화는 도로를 닦는 등의 추가적 작업으로 인한 전체일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단부를 완성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몸통부 축조를 시작했을 듯하다.

150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의 보고서, 71쪽, 그림28.

151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의 보고서, 80쪽의 그림35에 따르면 첨성대로부터 약 3km 이내에는 알칼리화강암만이 분포한다. 미문상화강암을 채취하기가 가장 용이했을 지점은 첨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6-7km 떨어진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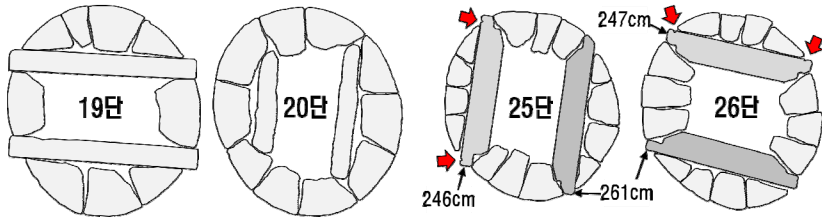


그림6- 첨성대 제19단, 20단, 25단, 26단의 석재 구성

셋째,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이뤄졌는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그림6에서 제19단의 장대석들과 달리 제20단의 장대석들은 가공형태, 길이의 차이, 첨성대 구조의 대칭성 측면에서 애초의 설계로 보기가 어렵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의 첨성대가 원형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¹⁵² 제20단의 장대석들은 후대의 복구과정에서 추가되었을 수도 있겠다.

넷째, 첨성대의 상층부는 시공에 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단지 높이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림6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홈에¹⁵³ 금속재질의 고정장치를 끼워서 외부로 돌출시킨 부착물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⁵⁴ 부착물의 크기, 재질, 기능 등은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장식이었다면 제작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을 듯하다.

본 연구는 문헌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첨성대의 완공연대는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어렵짐작해야만 한다면 선덕여왕 3년(634)경에 완성되었을 듯하지만,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¹⁵² 장활식(2012b), 앞의 논문, 72-99쪽.

¹⁵³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의 보고서, 32쪽, 사진15-사진18.

¹⁵⁴ 25단의 동쪽 장대석(길이: 261cm)과 26단의 남쪽 장대석(261cm)이 한 쌍이며, 26단의 북쪽 장대석(247cm)과 25단의 서쪽 장대석(246cm)이 다른 한 쌍이다. 홈이 있는 장대석 2개(25단의 서쪽과 26단의 북쪽)는 원형에서 같은 단에 서로 평행하도록 배치되었다고 봐야 한다(장활식(2012b), 앞의 논문, 93-96쪽).

선덕여왕 3년(634)에 분황사가 완성되었고, 4년(635)에 영묘사가 완성되었다. 이즈음에는 신라불국토설에 근거한 첨성대도 완성되었을 듯하다.¹⁵⁵ 그런데 전불시대칠처가람설 등을 근거로 신라불국토설을 주창했던¹⁵⁶ 밀교승려 안함(=안홍: 579-640)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분황사, 영묘사, 첨성대의 완성을 모두 지켜보았을 것이다.

선덕여왕 5년(635) 3월에 선덕여왕이 병환에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도 효과가 없어서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열었고, 밀본이 『약사경』을 읊어 늙은 여우와 흥륜사승려 법칙을 육환장으로 찢어 죽여 병을 치유했다고 한다.¹⁵⁷ ‘밀본(密本)’은 안함(=안홍)의 별호로 추정되며, 『약사경』은 안함(=안홍)이 들여온 『관정경』의 제12권인 「약사유리광불본원공덕경」을 말한다.¹⁵⁸ 선덕여왕의 병환을 치유했던 밀교승려가 다름 아닌 안함(=안홍=밀본)으로 판단되는데, 그는 첨성대에 49개의 등과 49척의 신변을 내걸고 밀단법을 행하여, 선덕여왕의 생명을 연장했다고 선언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¹⁵⁹

-
- 155 장운성·장활식(2009), 앞의 논문, 471쪽; 장활식(2012a), 앞의 논문, 155쪽; 장활식(2013), 앞의 논문, 133쪽에서는 『삼국사절요』의 물년설을 근거로 첨성대가 선덕여왕 16년(647) 1월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삼국사절요』의 물년설은 첨성대 완성시점이 아니라 첨성대에서 작단법이 행해졌던 시점으로 봐야 옳다.
- 156 전불시대칠처가람설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아도의 어머니인 고도령에게 가탁한 형태로 안함(=안홍)이 주창했다고 봐야 옳다(신종원(1992), 앞의 논문, 179-181쪽; 장활식(2015), 앞의 논문, 258-259쪽).
- 157 『三國史記』 善德王 5年 3月. “醫禱無效 於皇龍寺設百高座 集僧講仁王經”; 『三國遺事』 神呪, 密本摧邪. “讀藥師經 卷軸纔周 所持六環飛入寢內”
- 158 장활식(2015), 앞의 논문, 103-138쪽; 김연민, 「밀본의 약사경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제65집(2012), 203-239쪽.
- 159 일연은 밀본이 선덕여왕의 침전 밖에서 『약사경』으로 육환장을 날렸다고 했지만, 『약사경』에는 그런 비법이 없다. 육환장은 『관정경』 제 7권에 서술된 문두루비법의 우권구마 석장일 수법에 없다고 한다(『佛說灌頂經』 卷 7. “右手捉牛卷驅魔之杖長七尺”; 장활식(2017b), 앞의 논문, 204쪽). 문두루비법은 적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병환도 치유한다고 했다(『佛說灌頂經』 卷 7. “為病者作護”).

선덕여왕 5년(636)에 자장이 입당(入唐)했다. 선덕여왕 9년(640)에 안함(=안홍)이 만선도랑에서 입적했고, 그의 유혼은 서방정토로 떠났다고 한다.¹⁶⁰ 선덕여왕 12년(643) 3월에 자장이 귀국하여, 14년(645) 4월경에 황룡사구층탑의 চাল주를 세우고, 15년(646)에 『관정경』의 제6권 등에 근거한¹⁶¹ 황룡사구층탑을 완성했다.¹⁶² 황룡사구층탑은 안함(=안홍)이 발원했고,¹⁶³ 안함(=안홍)이 입적한 이후에 자장에 의해 완성되었다.¹⁶⁴

선덕여왕이 재위 16년(647) 1월 8일에 승하했다. 『관정경』과 『삼국사절요』의 서술에 따르면 선덕여왕의 승하를 전후로 첨성대에서 선덕여왕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밀단법과 총탑에 들어붙는 악귀들을 퇴치하는 밀단법을 실행했을 듯하다.

선덕여왕의 죽음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밀단법은 선덕여왕의 도리천 상생이 이뤄졌을 진덕여왕 1년(647)의 동짓날을 전후로 행해졌을 것이다. 안함(=안홍)이 입적한 이후의 밀단법은 자장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 문헌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원형의 첨성대는 『보살종도술천강신모태설광보경』의 칠보고대(七寶高臺)와 비슷했을 듯하다.¹⁶⁵ 상단의 네 모퉁이에 금방울을 매달고, 그 주변을 장식하고, 오색의 번(幡)과 개(蓋)를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 『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善德王九年九月二十三日 終於萬善道場”

161 신용철(2007), 앞의 논문, 452쪽; 옥나영(2007), 앞의 논문, 257쪽.

162 『三國史記』 善德王 14年 3月. “創造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其十四年歲次乙巳 始構建 四月 [...] 立刹柱明年乃畢功”

163 신종원(1992), 앞의 논문, 179-185쪽.

164 최종석(2007), 앞의 논문, 224쪽에서는 첨성대가 선덕여왕 15년(646)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견해이다. 첨성대와 황룡사구층탑의 공통점으로는 『관정경』의 제6권을 근거로 했다는 점, 안함(=안홍)에 의해 발원되었다는 점 등이 있지만, 완성연대가 같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65 『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 卷 5, 轉法輪品. “諸佛於池水中化作七寶高臺去池七仞 彼寶臺上敷寶高座 於四角頭皆懸金鈴 眾寶雜廁其間 懸繒幡蓋五色赤黃 快樂不可言”

V. 맺음말

본 연구는 『삼국유사』(1284±), 『세종실록』지리지(1432), 『삼국사절요』(1476)의 첨성대연대 관련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세종실록』지리지의 2년 설은 첨성대 착공연대로 추정되었다. 완공연대는 문헌기록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다소 막연하지만 대략 선덕여왕 3년(634) 전후였을 듯하다. 『삼국사절요』의 몰년설은 완공연대가 아니라, 첨성대에서 밀단법이 행해졌음의 은휘로 해석되었다. 『삼국유사』의 선덕여왕대설은 첨성대와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을 포괄하는 연대로 판단되었다.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절요』의 첨성대 관련기록에서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삼국유사』를 편술한 일연, 『세종실록』지리지의 첨성대 기록을 서술했을 경주부의 관원, 『삼국사절요』를 편찬한 서거정이 모두 안함(=안흥)이 저술한 『안함기』 즉 『별기』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리천장례를 위한 수릉과 첨성대가 선덕여왕대의 초기에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닿았다. 문헌기록에서 첨성대에 관한 기휘(忌諱)와 은휘(隱諱)가 많은 이유는 도리천장례의 괴특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¹⁶⁶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를 위한 밀교의 작단법(作壇法)이 실행된 총탑(塚塔)으로 판단되는데, '대(臺)'라 칭해져왔다. 단(壇)과 대(臺)가 같은 뜻인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에 전개되었던 바가 있다.¹⁶⁷

166 서거정은 황당하고 괴이한 일 중에서 너무 심한 것은 버리고, 대략만을 『삼국사절요』에 보존했다고 밝혔다(『三國史節要』, 序文, “荒怪之事 方言俚語 去其太甚 存其大略者 不敢輕改舊史 而且以著風俗 世道之淳彫爾”).

167 이용범(『續 첨성대문제』, 『한국과학사상사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43쪽)은 첨성대의 본질을 率堵坡(=stupa=묘탑)라고 했다.

밀단의 핵심은 단(檀)의 중앙에 차려지는 대(臺)이다. 밀단법의 성격에 따라 대의 주존(主尊)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불설다라니집경』의 공덕천상법은 대 위에 공덕천(=길상천녀)을 안치하고, 그 왼쪽 편에 범마천(=범천)을 그려두고, 오른쪽 편에 도리천의 제석 등을 그려둔다고 했다.¹⁶⁸ 대는 단의 일부이지만, 단의 기능은 대에 안치된 주존의 위력으로 발휘된다.

또한 밀단은 대개 목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다. 독사에게 물리면 용이 있을 만한 연못가에 밀단을 차리고, 귀신이나 도깨비에게 홀리면 공동묘지 주변에 밀단을 차린다.¹⁶⁹ 따라서 밀단이 탑(塔)이나 대(臺) 앞에 차려질 수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¹⁷⁰ 첨성대에서 행해졌던 밀단의 구체적인 형태는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첨성대를 통해 밀단의 위력이 발휘되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이어지는 의문은 ‘첨성’이 뜻하는 바이다. 첨성대가 총탑이었다면, ‘첨성(瞻星)’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필자가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곧 밝힐 예정이다. 다만 ‘첨성’이 ‘천문관측’을 뜻할 리는 없고, ‘도리천을 우러러보다’를 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짐작된다.

168 『佛說陀羅尼集經』 卷 10. “其功德天像 [...] 宣臺上坐 左邊畫梵摩天 [...] 右邊畫帝釋天”

169 『文殊師利寶藏陀羅尼經』 卷 1. “若蛇螫者 於大池有龍之處作法即可”

170 『一字佛頂輪王經』 卷 5. 大難勝忿怒王印. “又法舍利塔處 高山頂處 阿蘭若處 深山谷處 河泉池處 造作輪法·劍法·杵法·杖法·黑鹿皮法 等 皆各先呪一千八遍 然乃依法作法誦呪”; 『密宗道次第廣論』 卷 7. “於作台處隨台[原註: 作壇之台]量度”; 『海游錄』 卷 上. “作壇于臺之雷 壇之高半尋”

참고문헌

1. 1차 자료

『新羅文武大王陵碑』,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貞孝公主墓誌』, 『聖德大王神鐘之銘』.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史節要』,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太祖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中宗實錄』.
『東國史略』(朴祥), 『東史會綱』, 『東史綱目』, 『紀年東史約』, 『菊露秋寫朝鮮歷史』.
『海東高僧傳』, 『慶州先生安』.
『慶尙道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京雜記』, 『輿地圖書』, 『大東地志』, 『增訂東國文獻備考』.
『東文選』, 『稼亭集』, 『庚子燕行雜識』, 『薊山紀程』, 『高峯集』, 『孤雲集』, 『琴湖遺稿』, 『湛軒書外集』, 『臺山集』, 『東溟集』, 『聿巖集』, 『林下筆記』, 『梅月堂集』, 『無名子集』(尹愔), 『眉叟記言』, 『浮查集』,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石堂遺稿』, 『守宗齋集』, 『是庵集』, 『息山集』, 『與猶堂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韋庵文稿』, 『林下筆記』, 『自著』, 『佔畢齋詩集』, 『拙翁集』, 『秋齋集』, 『退溪集』, 『漂海錄』, 『海游錄』, 『好古窩集』.
『經律異相』, 『大寶積經』, 『文殊師利寶藏陀羅尼經』, 『密宗道次第廣論』, 『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 『佛說觀佛三昧海經』, 『佛說灌頂經』, 『佛說陀羅尼集經』, 『甚希有經』, 『一字佛頂輪王經』, 『撰集百緣經』.
『前漢書』, 『隋書』, 『禮記』.
『長安志』, 『游城南記』, 『禪林象器箋』, 『臨潭縣志』.
『大慈恩寺三藏法師傳』.
『文選』, 『全唐詩』, 『水經注』, 『蘇東坡全集』, 『曹子建集』.

2. 단행본

김기홍,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 비평, 2000.
이기백,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4.
이용범, 『한국과학사상사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 불함문화사, 1976.
『경주시사』.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7.
『경주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 논문

- 김광태, 「첨성대 수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 『천문학논총』 28권 2호, 2013, 25-36쪽.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 24집, 1993, 2127-2162쪽.
- 김명숙, 「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상학』 32권 3호, 2016, 139-187쪽.
- 김연민, 「밀본의 약사경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집, 2012, 203-239쪽.
-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집, 2000, 145-195쪽.
- 김용성·강재현,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집, 2012, 175-207쪽.
- 김일권, 「첨성대의 靈臺적 독법과 신라 왕경의 三雍제도 관점」. 『신라사학보』 18집, 2010, 5-31쪽.
- 남천우, 「첨성대에 관한 제설의 검토」. 『역사학보』 64집, 1974, 115-136쪽.
- 민영규, 「瞻星臺偶得」. 『한국과학사학회지』 3권 1호, 1981, 140-143쪽.
- 박창범, 「경주 첨성대」. 『제3회 고천문연구 워크숍』, 2009, 47-60쪽.
- 서인원,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의 재검토(1)」. 『역사와 교육』 8집, 1999, 213-238쪽.
- 송민구, 「경주 첨성대 실측 및 복원도에 의한 비례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3권 1호, 1981, 52-75쪽.
- 신용철, 「초기 신라 佛塔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7집, 2007, 447-465쪽.
- 신종원, 「안흥과 신라불국토설」. 『중국철학』 3집, 1992, 167-189쪽.
- _____,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집, 1996, 37-66쪽.
- _____,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량조에 보이는 '귀신'세력」. 『신라사학보』 14집, 2008, 5-26쪽.
- 엄기표, 「新羅 僧侶들의 葬禮法과 石造浮屠」. 『문화사학』 18집, 2002, 105-171쪽.
- 오현덕, 「GPR 탐사를 통한 첨성대 주변 지하유구 분석」. 『첨성대 창으로 본 하늘 위 역사문화콘텐츠』, 2019년 6월 14일 학술발표회, 14-40쪽.
-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3집, 2007, 249-277쪽.
- 이강식, 「첨성대의 본질에 따른 문화마케팅전략구축」. 『경주대학교 논문집』 10집, 1998, 33-65쪽.
- 이기동, 「선덕여왕의 시대: 첨성대 논쟁에 덧붙여서」. 『한국과학사학회지』 3권 1호, 1981, 145-146쪽.
- 이용범, 「첨성대 存疑」. 『진단학보』 38집, 1974, 27-48쪽.

- _____, 「續 첨성대문제」. 『한국과학사상사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32-69쪽.
- 장윤성·장활식, 「첨성대 회위정 가설」. 『한국고대사연구』 54집, 2009, 463-502쪽.
- 장활식, 「첨성대 옛 기록의 분석」. 『신라문화』 39집, 2012a, 117-158쪽.
- _____, 「첨성대의 파손과 잘못된 복구」. 『문화재』 45권 2호, 2012b, 72-99쪽.
- _____, 「경주 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집, 2013, 111-154쪽.
- _____, 「해동고승전 釋安함전의 분석」. 『신라문화』 46집, 2015, 243-278쪽.
- _____,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일본의 실체」. 『신라문화』 47집, 2016, 103-138쪽.
- _____, 「첨성대 축조 발원자」. 『신라문화』 49집, 2017a, 31-64쪽.
- _____, 「비형랑과 목랑신앙」. 『신라문화』 50집, 2017b, 181-212쪽.
- _____, 「삼국유사 신주편 해통항릉조의 분석」. 『신라문화』 52집, 2018, 71-1047쪽.
- 전상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천문의기」. 『고문화』 3집, 1964, 13-23쪽.
- 정구복, 「三國史節要에 대한 史學史的 고찰」. 『역사교육』 18집, 1975, 87-130쪽.
- 정기호, 「경관에 개재된 내용과 형식의 해석: 석굴암 조영을 통하여 본 석굴형식과 신라의 동향문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9권 2호, 1991, 23-31쪽.
- 정길자, 「韓國佛僧의 傳統葬法研究」. 『승실사학』 4집, 1986, 151-173쪽.
-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I)」. 『역사학보』 69집, 1976, 65-99쪽.
- 정연식, 「선덕여왕과 聖祖의 탄생, 첨성대」. 『역사와 현실』 74집, 2009, 299-388쪽.
- 정용숙, 「新羅 善德王代の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4, 235-266쪽.
- 주보돈,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4, 206-234쪽.
-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 65집, 2012, 35-75쪽.
- 최영성, 「新羅聖德大王神鍾의 銘文 研究: '思想性' 탐색을 겸하여」. 『한국철학논집』 56집, 2018, 9-46쪽.
- 최종석, 「신라 미륵신앙과 첨성대」. 『보조사상』 27집, 2007, 191-229쪽.
- 하대룡,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방식의 검토: 불교식 火葬 이전의 선사·고대 火葬 문화의 특성」. 『제36회 한국고고학대회 발표문』, 2012, 389-400쪽.
- 홍성익, 「한국 古·中世 승려 墓塔의 지하석실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45집, 2019, 543-570쪽.
- 和田雄治, 「慶州瞻星臺の記」. 『天文月報』 2권 11호, 1910, 121-124쪽.

국문초록

첨성대에 대해 『삼국유사』(1284±)는 선덕여왕대(632-647)의 “축첨성대(築瞻星臺)”라고 했고, 『세종실록』지리지(1432)는 선덕여왕 2년(633)의 “소축(所築)”이라 했고, 『삼국사절요』(1476)는 선덕여왕 몰년(647)의 “작첨성대(作瞻星臺)”라고 했다. 후대 문헌들은 이들 중에서 하나를 충실히 따르거나, 기록들을 조합하거나, 간혹 다른 연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삼국유사』에서 첨성대는 선덕여왕 5년(636) 이전에 착공되었고, 선덕여왕의 죽음보다 앞서 완공되었다고 추정되었다. 『세종실록』(1454)지리지(1432)의 선덕여왕 2년(633)은 첨성대 완공연대가 아니라 착공연대로 판단되었다. 『삼국사절요』의 “작첨성대”는 첨성대의 착공이나 완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첨성대에서의 작단법 실행을 은휘한다고 해석되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2년(633)에 착공되어, 3년(634)경을 전후로 완성된 듯하며, 선덕여왕 몰년(647)에 첨성대에서 『관정경』에 의거한 작단법이 실행되었을 듯하다.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절요』의 첨성대연대는 상충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대를 달리 기록했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영혼의 도리천상생을 기원한 밀교의 총탑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건립되는 일반적인 묘탑과는 달리 선덕여왕대의 초반에 이미 완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투고일 2019. 9. 23.

심사일 2019. 11. 18.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안함(Ahn Haam), 관정경(Sutra of Consecration), 도리천(Trāyastriśa), 총탑(stupa), 밀단법(Secret Rituals)

Abstracts

Determining the Year of CheomSeongDae's Construction

Chang, Hwal-sik

CheomSeongDae(瞻星臺)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a celestial observatory(天文觀測臺). However, recent research indicates that it had been a stupa(廟塔) for Queen SeonDeok(善德女王) of Silla, who reigned from 632 to 647. This paper examines some of the early records on CheomSeongDae to determine its year of construction (築造年代).

The late 13th-century text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states that CheomSeongDae was constructed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善德女王代). Hidden inside the text, however, is the implication that CheomSeongDae was related to the Queen's wish to be reborn in Trāyastriṃśa(忉利天), a Buddhist heaven(天國) located on top of Mountain Sumeru(須彌山). Interestingly, the location of the Queen's tomb and CheomSeongDae are perfectly aligned with the direction of sunrise on winter solstice(冬至日出線). This arrangement seems to have been based on an esoteric sutra(密教經典) called *Sutra of Consecration*(『灌頂經』), which states that a holy ruler(聖王) may be buried in a tomb surrounded by a thick forest and commemorated by a stupa built at a busy street(塔塚葬).

According to the "Treatise on Geography," an early 15th-century text in the *Chronicles of King Sejong*(『世宗實錄』地理志), CheomSeongDae was built in 633, the second year of Queen SeonDeok's reign. The present study finds this statement fairly reliable, as it appears to have been made between 1427 and 1430 by a local officer stationed in Gyeongju(慶州), the capital of the Silla Dynasty, based on old records existing at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t that time. This means that the Queen's stupa would have been built during the earlier years of her reign, not after her death.

A late 15th-century history book, the *Complete Brief of Three Kingdoms' History*(『三國史節要』), inserted the statement "Silla practiced CheomseongDae(新羅作瞻星臺)" just before the record of Queen SeokDeok's death in January 647.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CheomSeongDae was built in the year of Queen's death; instead, it likely refers to the performance of a series of

esoteric rituals at CheomSeongDae after the Queen's death, thus confirming that the structure was a stupa wishing for the rebirth of Queen SeonDeok in Trāyastriṃśa.

Later records combined and consequently distorted preceeding records. In addition, many speculative statements were added to the record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for example, the *Expanded Reference Compilation of Documents* (『增補文獻備考』), an encyclopedia for culture and institutions published in 1908, defines CheomSeongDae as a celestial observatory and states that it was built in the year of Queen SeonDeok's death. Such distorted statements have led many modern researchers to incorrectly infer the nature of CheomSeongDae. This paper recommends potential researchers of CheomSeongDae to carefully examine earlier records and not rely only on records dating from more recent centuries.

